루 해리슨 : 바이올린 협주곡 & 그랑 듀오 & 이중 음악

팀 페인(바이올린), 마이클 보리스킨(피아노),
포스트–클래시컬 앙상블(연주), 앙헬 길–오르도네스(지휘)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루 헤리슨 음악의 스펙트럼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음악'의 개척자, 루 해리슨의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구체로 이루어진 설치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단순한 가운데 미묘하게 변하는 인상들이 이채롭다. 인도네시아 민속음악 '가믈란'의 요소가 두드러지는 '그랑 듀오'는 루 해리슨 음악의 본질과 닿아있는 작품이다. 존 케이지와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이중음악'은 '우연'에서 '필연'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이 담겨 있다. 연주자들의 면모에 걸맞게 루 해리슨 음악의 본질을 명쾌하게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8559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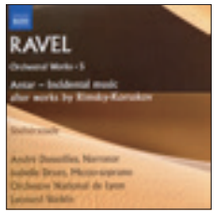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힌데미트: 마리아의 생애(1948년 개정판)
라헬 하르니슈(소프라노), 얀 필리프 슐츠(피아노)

실용주의에 대한 힌데미트의 관심, 연주자들의 균형감이 돋보이는 작품

8573423



라벨: 관현악 작품 5집(안타르 & 셰하라자데)
이자벨 드루에(메조 소프라노), 앙드레 뒤솔리에(나레이터),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연주), 레너드 슬래트킨(지휘)

라벨의 색채로 다시 탄생한 코르사코프의 교향시 두 작품

8573448

브람스: 현악사중주 3번 & 클라리넷 5중주
제임스 캠벨(클라리넷),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연주)

매혹적인 바이올린의 기교, 감성 충만한 선율

8573454

모레노 토로바: 기타 협주곡 작품 2집
페페 로메로 & 비센티 코베스(기타), 에스트레마두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누엘 코베스(지휘)

작곡가 토로바의 정수가 담긴 기타음악

8573503

타네예프 & 보로딘: 피아노 삼중주
델타 피아노 삼중주단(연주)

절묘한 대위법과 서정 & 밝은 색채감

8573561

쇼스타코비치: 실내 교향곡(Op.73a) & 현을 위한 교향곡(Op.118a)
키에프 비르투오시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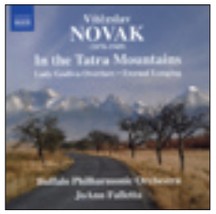
원곡보다 강렬한 고전적인 색채와 그늘의 무게감, 유머러스한 일갈

8573601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건반 소나타 18집
세르히오 몬데리오(피아노)

스카를라티 후기 건반 소나타를 대하는 열정 & 놀라운 결과물

8573611



비테츠슬라프 노바크: 교향시 '타트라산에서' & '영원한 갈망', '고다이바 부인' 서곡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조앤 팔레타(지휘)

'알프스교향곡'의 보헤미아 버전

8573683

슈베르트: 피아노 변주곡 작품집
예프게니 욘토프(피아노)

신선하고 탁월한 단편들 & 지음과의 순간들이 담긴 작품들

8573707

샤를 아우구스테 드 베리오: 바이올린협주곡 4 · 6 · 7번 외
아야나 츠지(바이올린), 파두리체 체코 첼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미하엘 할라스(지휘)

매혹적인 바이올린의 기교, 감성 충만한 선율

8573734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드림레코드

아울로스 뉴스지 71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71호 | May 2017

*Key Issue

엽서형태 컬러링 북 'Song to the Moon' CD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 15th Anniversary CD

*Cover Story

한정수량, 스페셜 가격 발매,

낙소스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한정 박스

Key Issue

[Song to the Moon] 달에게 기원하는 노래 CD 3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15th Anniversary CD 45

Cover Story

낙소스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한정 박스(30CDs Special Prices) 4-9

CD

BR Klassik 10
Calliope 10-11
Capriccio 12-14
Cedille 14
CD Accord 15
Dacapo 15
Divine Art 16
Dynamic 16-17
Farao 17
Gramola 18-19
Grand Piano 19-21
Gothic 21
IBS Classic 22-23
Indesens 24-27
J.S. Bach-stiftung 28-29
La mà de guide 29
Loft 29
LPO 30
MD&G 30-32
Naxos 33-37
Novum 38
Ondine 38-39
Proprius 40
RCO Live 40
SDG 41
Simax 41
Solo Musica 42
Steinway & Sons 42-43
Stone Records 43
Toccata Classics 44
Tonkunstler 44

DVD & Blu-ray

Accentus 46
Arthaus 46-47
BelAir 47-50
C Major 51-53
Dynamic 54-55
EuroArts 56-62
Naxos 63
OpusArte 64-69

LP

Accentus 70
BR Klassik 70

공연소식

***피아니스트_ 가브리엘라 몬테로**
일시: 4월 21일(금) 8pm / 장소: LG 아트센터

***라르스 포그트 & 로열 노던 신포니아**..... p39 참고
[베토벤 마라톤 콘서트]
일시: 5월 24, 25일(수, 목) 8pm / 장소: 롯데콘서트홀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달을 소재로 한 클래식을 "히어링"하고, 달빛을 "컬러링"하며, 가슴을 "힐링"한다

'달'을 소재로 한 15곡의 클래식 명곡과 15종의 삽화를 동봉한 아울로스 미디어 기획음반으로 슈베르트, 슈만, 베토벤, 쇼팽 등의 가곡과 기악곡으로 되어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류희의 삽화는 달과 인간이 연출하는 아름답고 감성 어린 풍경을 담고 있으며, 엽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밑그림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봉된 색연필(12색)을 통해 자신만의 색을 입힐 수 있다. 이 음반은 현대인에게 휴식, 위안, 만족, 낭만, 아날로그의 감수성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음악의 히어링(Hearing)을 통해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감성 저격 콘텐츠다.

AMC2-165 **[CD + 엽서형태 컬러링 북]**

+

FABER-CASTELL 색연필(12색)

– "달"을 소재로 한 클래식을 들으며 완성하는 나만의 엽서
– 잔잔한 클래식, 동화 같은 그림이 함께 있는 감성 저격 음반북

– 음악
아울로스 미디어가 기획한 음반으로 달을 소재로 한 15곡의 클래식 명곡과 15종의 삽화가 수록되어 있어 음악을 히어링(Hearing)하며 힐링(Healing)할 수 있는 현대인 감성 저격 콘텐츠다. 쏟아지는 자기 계발서에 지친 이에게는 휴식을, 음악을 들으며 미술을 감상하고 싶은 이에게 만족을,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에게는 위안을, '달'을 소재로 하여 클래식 음악에 보다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이에게는 지식을, 손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편지지와 연필이 될 수 있는 감성형 멀티 음반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인간은 달을 향해 많은 얘기를 하고 교감하며 소원을 빌며 기도를 했고, 또 시를 쓰고 많은 음악을 만들었다. 이 음반에는 인간이 달을 올려다보며 온화한 빛을 느끼고, 그 정서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던 유명곡들을 모아 담았고, 각 곡마다 문학적인 부제를 달았다. 각 곡은 2~10분 분량으로 클래식 음악에 처음 입문하는 이라고 하여도 부담 없이 '달'을 소재로 한 유명 작곡가들의 명곡을 감상할 수 있다. 수록된 15곡은 다음과 같으며, 슈베르트 '가을 저녁'(13트랙)과 토스티 '초승달'(14트랙)을 제외하고 모든 노래는 여성 성악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1) 슈베르트 '방랑자가 달에게'(가곡), (2) 슈베르트 '세레나데'(가곡), (3) 쇼팽 '녹턴'(피아노 독주곡 '녹턴' 2번), (4) 슈베르트 '달에게'(가곡), (5) 베토벤 '달빛'(피아노 소나타 2번 '월광'), (6) 슈만 '달밤'(가곡 '리더크라이스' Op.39-5), (7) 쇤베르크 '아픈 달'(낭송곡 '달에 홀린 피에로' 중 1부의 7번곡), (8) 베를리오즈 '묘지에서-달빛'(연가곡 '여름 밤'), (9) 쇼팽 피아노 협주곡(피아노 협주곡 1번 중 2악장), (10) 드뷔시 '달빛'(오케스트라 버전), (11) 드보르자크 '달에게 기원하는 노래'(오페라 '루살카' 중), (12) 클라라 슈만 '달은 고요히 찾아오네'('여섯 개의 가곡' 중), (13) 슈베르트 '겨울 저녁'(가곡), (14) 토스티 '초승달'(가곡), (15) 브람스 '오월의 밤'(가곡집 Op.43 중 첼로 ·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구성되었다.

– 컬러링 북/ 삽화
다양한 책 속의 삽화를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류희가 그린 15종의 삽화는 각 곡의 부제에 걸맞도록 달과 사람이 연출하는 아름답고 감성 어린 풍경을 담고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보는 엽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삽화지는 밑그림으로만 되어 있어 음반에 포함된 파버 카스텔 색연필(12색)을 통해 자신만의 색을 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클래식 음원의 보고 '낙소스'
낙소스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한정 박스
The Anniversary Collection

레이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낙소스에서는 지난 30년간의 레퍼토리를 망라하는 30장의 타이틀을 하나의 박스로 발매하였다. 1987년부터 2016년까지 발매되었던 뛰어난 아티스트들의 수많은 타이틀 중에 엄선되어진 이 30장의 타이틀은 평론가와 음악팬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며 낙소스 레이블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독자적인 클래식 레이블로 성공하는데에 기여하였다.

[보조자료]

낙소스의 역사를 대변하는 선곡일 뿐만 아니라
낙소스를 통해 존재감을 알림과 동시에 오늘날의 낙소스를 있게 해 준
아티스트들과 오케스트라들에 대한 헌정 박스

2017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낙소스 레코드가 기념 음반을 발매했다. 1987년 클라우스 하이만에 의해 창립된 낙소스는 지난 30년동안 출시된 9천여 종의 클래식 음반에서 30장을 추려 30주년 기념 한정반에 담았다.

낙소스는 1987년 당시 LP보다 3배 비싸던 CD의 가격을 LP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저가형 CD 레이블로 출발하였다. 잘 알려지진 않았더라도 실력이 있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출신의 아티스트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첨단 디지털로 녹음하여 클래식 레파토리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모회사의 희귀 음반 레이블인 마르코 폴로가 1982년 창립 이후 이미 이 두 나라에서 음반을 제작해 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대중적인 레파토리에 집중하던 낙소스가 전곡 녹음에 관심을 두고 만든 첫 작품은 코다이 사중주단의 하이든 현악 사중주 전곡이었다. 이 음반으로 신출내기 저가 브랜드 낙소스는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다.

음향, 연주력으로 일단 명성을 얻게 된 낙소스는 서구를 비롯한 전세계 곳곳의 아티스트, 오케스트라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유명 작곡가의 전곡 녹음은 점차 낙소스의 사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아티스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은 낙소스 하우스 아티스트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첫번째는, 1986년 첫 인연을 맺은 이래 지금도 낙소스 레코딩을 하고 있는 헝가리 피아니스트 예뇌 얀도이다. 그 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 타카코 니시자키, 일랴 칼러, 헨닝 크라게루트, 티안와 양 그리고 첼리스트 마리아 클리겔, 기타리스트 노버트 크래프트,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 등이 있다. 또한 지휘자, 오케스트라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안토니 비트 & 폴란드 국립 방송 교향악단, 바르샤바 필하모닉; 마린 알솝 &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 본머스 심포니, 볼티모어 심포니, 상파울로 국립 관현악단; 헬무트 뮐러 브륄 & 쾰린 실내 관현악단; 레너드 슬레트킨 & 디트로이트 심포니,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윤 매르클 & MDR 라이프치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제임스 저드 & 뉴질랜드 심포니; 조앤 팔레타 & 버팔로 필하모닉; 케네스 셔머혼, 지안카를로 게레로 & 내쉬빌 심포니; 케빈 말론 & 아라디아 앙상블; 제러드 슈워츠 & 시애틀 심포니 등이 있다.

현재 낙소스는, 레이블 고유의 타이틀을 포함하여 세계 30개국에서 만들어진 9천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00여 타이틀을 새로 출시하고 있다. 보잘것 없던 저가 레이블이 이제 클래식 음반업계에서 가장 대접받는 레이블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낙소스는 자사 레이블 뿐만 아니라 타 클래식 레이블을 포함한 전 세계 배급, 마케팅을 위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1996년에는 낙소스, 마르크 폴로 전 타이틀의 스트리밍 카탈로그를 만들었고, 2002년에는 업계 최초로 회원제 스트리밍 시스템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를 발족하였다.

이 30주념 기념 박스 세트는 낙소스의 역사를 대변하는 선곡일 뿐만 아니라 낙소스를 통해 존재감을 알림과 동시에 오늘날의 낙소스를 있게 해 준 아티스트들과 오케스트라들에 대한 헌정이다.

낙소스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한정 박스
한정수량, 스페셜 가격 발매

Naxos 8503293
[30 CDs to celebrate 30 years]

- 한정수량, 스페셜 가격 발매
- 9000여종의 클래식 음반에서 30장을 선별, 특별 한정발매로 만들어진 기념박스
- 30장의 앨범을 스페셜한 가격으로....

[낙소스 30주년 기념음반 음반별 리스트 (30 CDs)]

[Disc 1]
Bach, Johann Sebastian (8554609)
Overture (Suite) No. 1 in C Major, BWV 1066/ Overture (Suite) No. 2 in B Minor, BWV 1067
Overture (Suite) No. 3 in D Major, BWV 1068/ Overture (Suite) No. 4 in D Major, BWV 1069

[Disc 2]
Beethoven, Ludwig van (8550045)
Piano Sonata No. 8 in C Minor, Op. 13, "Pathétique"
Piano Sonata No. 14 in C-Sharp Minor, Op. 27, No. 2, "Moonlight"
Piano Sonata No. 23 in F Minor, Op. 57, "Appassionata"

[Disc 3]
Brahms, Johannes (8573489)
Cello Sonata No. 1 in E Minor, Op. 38

Brahms, Johannes
4 Gesange, Op. 43: No. 2. Die Mainacht (arr. G. Schwabe and N. Rimmer for cello and piano)
5 Lieder, Op. 47 (excerpts) (arr. G. Schwabe and N. Rimmer for cello and piano)
5 Gesange, Op. 72: No. 4. Verzagen (arr. G. Schwabe and N. Rimmer for cello and piano)
6 Lieder, Op. 85: No. 1. Sommerabend (arr. G. Schwabe and N. Rimmer for cello and piano)
6 Lieder, Op. 97: No. 1. Nachtigall (arr. G. Schwabe and N. Rimmer for cello and piano)

Brahms, Johannes
Cello Sonata No. 2 in F Major, Op. 99

[Disc 4]
Bruckner, Anton (8553452)
Symphony No. 5 in B-Flat Major, WAB 105

[Disc 5]
Chopin, Fryderyk (8554540)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Piano Concerto No. 2 in F Minor, Op. 21

[Disc 6]
Copland, Aaron (8559758)
Rodeo/ Dance Panels/ El Salón México/ Danzón Cubano

[Disc 7]
Daugherty, Michael (8559635)
Metropolis Symphony/ Deus ex Machina

[Disc 8]
Debussy, Claude (8572584)
Breiner, Peter, arranger(s)
Préludes, Book 1 (arr. P. Breiner for orchestra)

[Disc 9]
Dvorák, Antonín (8573279)
Piano Trio No. 3 in F Minor, Op. 65, B. 130/ Piano Trio No. 4 in E Minor, Op. 90, B. 166, "Dumky"

[Disc 10]
Dvorák, Antonín (8570714)
Symphonic Variations, Op. 78/ Symphony No. 9 in E Minor, Op. 95, "From the New World"

[Disc 11]
Dvorák, Antonín (8550503)
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B. 191

Elgar, Edward
Cello Concerto in E Minor, Op. 85

[Disc 12]
Elgar, Edward (8557273)
Coronation March, Op. 65/ Grania and Diarmid, Op. 42: Funeral March
5 Military Marches, Op. 39, "Pomp and Circumstance"/ Caractacus, Op. 35: Triumphal March
The Crown of India Suite, Op. 66: V. March of the Mogul Emperors
Empire March/ Polonia, Op. 76

[Disc 13]
Glière, Reinhold (8573161)
Symphony No. 3 in B Minor, Op. 42, "Il'ya Muromets"

[Disc 14]
Górecki, Henryk Mikołaj (8550822)
Blazusiakowna, Helena Wanda, lyricist(s)
Symphony No. 3, Op. 36, "Symphony of Sorrowful Songs"

Górecki, Henryk Mikołaj
3 Olden Style Pieces

[Disc 15]
Grieg, Edvard (8570236)
Peer Gynt Suite No. 1, Op. 46/ Peer Gynt Suite No. 2, Op. 55
4 Songs from The Fisher Maiden, Op. 21: No. 1. Det første møde (The First Meeting)
Den bergtekne (The Mountain Thrall), Op. 32
6 Orchestral Songs, EG 177

[Disc 16]
Handel, George Frideric (8557764)
Water Music: Suite No. 1 in F Major, HWV 348/ Water Music: Suite No. 2 in D Major, HWV 349
Water Music: Suite No. 3 in G Major, HWV 350/ Music for the Royal Fireworks, HWV 351

[Disc 17]
Haydn, Franz Joseph (8550315)
String Quartet No. 63 in B-Flat Major, Op. 76, No. 4, Hob.III:78, "Sunrise"
String Quartet No. 64 in D Major, Op. 76, No. 5, Hob.III:79
String Quartet No. 65 in E-Flat Major, Op. 76, No. 6, Hob.III:80

[Disc 18]
Liszt, Franz (8570517)
Piano Concerto No. 1 in E-Flat Major, S124/R455 / Piano Concerto No. 2 in A Major, S125/R456
Totentanz, S126/R457

[Disc 19]
Mozart, Wolfgang Amadeus (8557011)
Flute Concerto No. 2 in D Major, K. 314/ Concerto for Flute and Harp in C Major, K. 299
Flute Concerto No. 1 in G Major, K. 313

[Disc 20]
Olsen, Carl Gustave Sparre (8572827)
6 Gamle bygdevisur frå Lom (6 Old Village Songs from Lom), Op. 2 (version for violin and orchestra)

Atterberg, Kurt: Suite No. 3, Op. 19, No. 1 (version for 2 violins and string orchestra)
Stenhammar, Wilhelm: 2 Sentimental Romances, Op. 28
Bull, Ole Bornemann: Kraggerud, Henning, arranger(s), Recuerdos de Habana (reconstructed by H. Kraggerud)
Bull, Ole Bornemann: Et Sæterbesøg (A Mountain Vision) (version for violin and string orchestra)
Halvorsen, Johan: Norwegian Dance No. 3

Sibelius, Jean
Humoresque No. 1 in D Minor, Op. 87, No. 1
Humoresque No. 2 in D Major, Op. 87, No. 2
Humoresque No. 3 in G Minor, Op. 89a
Humoresque No. 4 in G Minor, Op. 89b
Humoresque No. 5 in E-Flat Major, Op. 89c
Humoresque No. 6 in G Minor, Op. 89d
Sinding, Christian: Abendstimmung, Op. 120a

[DISC 21]
Rachmaninoff, Sergey (8573469)
Études-tableaux, Op. 39
Moments musicaux, Op. 16

[Disc 22]
Rimsky-Korsakov, Nikolay Andreyevich (8572787)
The Snow Maiden Suite

Sadko, Musical Picture, Op. 5
Mlada Suite
The Golden Cockerel Suite

[Disc 23]
Rodrigo, Joaquín (8550729)
Concierto de Aranjuez
Villa-Lobos, Heitor: Guitar Concerto
Castelnuovo-Tedesco, Mario: Guitar Concerto No. 1 in D Major, Op. 99

[Disc 24]
Rossini, Gioachino (8553436)
Sterbini, Cesare, lyricist(s)
Il barbiere di Siviglia (The Barber of Seville) (Highlights)

[Disc 25]
Sarasate, Pablo de (8572216)
Carmen Fantasy, Op. 25
Concert Fantasy on Gounod's Roméo et Juliette, Op. 5
Chansons russes (Canciones rusas), Op. 49 (version for violin and orchestra)
El canto del ruiseñor, Op. 29 (version for violin and orchestra)
La chasse, Op. 44
Jota de Pablo, Op. 52 (version for violin and orchestra)

[Disc 26]
Szymanowski, Karol (8570724)
Jankowski, Józef, lyricist(s)
Stabat Mater, Op. 53
Szymanowski, Karol
WyspiaÐski, Stanisław, lyricist(s)
Veni Creator, Op. 57
Szymanowski, Karol
Liebert, Jerzy, lyricist(s)
Litania do Marii Panny (Litany to the Virgin Mary), Op. 59
Szymanowski, Karol
Szymanowska, Zofia, lyricist(s)
Demeter, Op. 37b
Szymanowski, Karol
WyspiaÐski, Stanisław, lyricist(s)
Penthesilea, Op. 18

[Disc 27]
Tallis, Thomas (8557770)
Bible - Old Testament, lyricist(s)
Spem in alium
Tallis, Thomas
Mass Text, lyricist(s)
Mass, "Salve intemerata"
Mass, "Salve intemerata"
Tallis, Thomas
With all our hearts
Discomfort them, O Lord
I call and cry to thee, O Lord

[Disc 28]
Tchaikovsky, Pyotr Il'yich (8570568)
Manfred, Op. 58
The Voyevoda, Op. 78

[Disc 29]
Tchaikovsky, Pyotr Il'yich (8557690)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Sérénade mélancolique, Op. 26
Tchaikovsky, Pyotr Il'yich
Glazunov, Alexander Konstantinovich, arranger(s)
Souvenir d'un lieu cher, Op. 42 (arr. A.K. Glazunov for violin and orchestra)
Tchaikovsky, Pyotr Il'yich
Valse-Scherzo, Op. 34

[Disc 30]
Vivaldi, Antonio (8550056)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in E Major, Op. 8, No. 1, RV 269, "La primavera" (Spring)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in G Minor, Op. 8, No. 2, RV 315, "L'estate" (Summer)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in F Major, Op. 8, No. 3, RV 293, "L'autunno" (Autumn)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in F Minor, Op. 8, No. 4, RV 297, "L'inverno" (Winter)
Concerto for Strings in G Major, RV 151, "Concerto alla rustica"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317

라벨: 스페인의 시간

아르케스(콘셉시온), 베어(곤살레스), 비달(토크케스), 뒤아멜(라미로), 로트(고메스), 뮌헨 방송 관현악단, 아셔 피쉬(지휘)

라벨의 첫 오페라로서 희극적인 장면들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그린 연주

코미디 오페라 '스페인의 시간'은 라벨이 32세 때의 작곡한 그의 첫 무대 작품으로서, 초연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재연되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시계장인인 토르케마다가 외부 업무를 볼 때마다 그의 부인 콘셉시온은 바람을 피운다. 그런데 시계장인을 만나러 온 라미로가 자발적으로 큰 시계를 콘셉시온의 방에 옮겨주는데, 이 때 애인인 곤살레스와 고메스가 차례로 들어와 누가 있는 것을 보고는 시계 뒤에 숨는다. 마지막에 토르케마다가 들어와 이 상황을 의아해 한다. 이 연주는 희극적인 장면들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Calliope

www.indesensdigital.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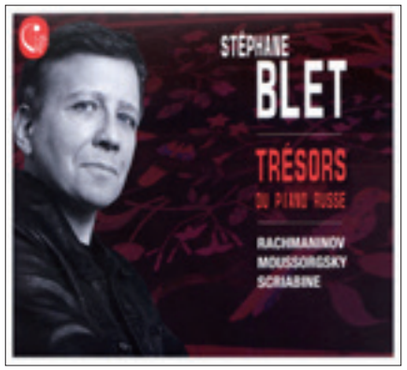
CAL1632

차이콥스키 · 무소륵스키 · 스트라빈스키 관현악곡 모음(피아노 편곡)

필리프 기혼-헤르베르트(피아노)

러시아 대작곡가들의 명작을 피아노의 감각으로!

파리음악원에서 공부한 헤르베르트는 작곡가이자 합창 코치, 그리고 많은 성악가들의 반주를 맡고 있는 감각적인 피아니스트이다. 슈베르트 · 쇼팽 · 리스트 · 드뷔시 등을 녹음해오던 그가 차이콥스키 '로미오와 줄리엣'의 환상서곡, 스트라빈스키 '불새',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에 프랑스식 세련미를 입혔다. 표제적 성격이 강한 음악들에 입히는 분명한 음영, 묵직한 표현력, 때로는 쭉쭉 뻗어나오는 후련감과 거칠 것 없는 자신감이 돋보인다. 또랑또랑하게 귀에 꽂히는 반주를 들려주는 듯한 왼손의 터치감으로 인해 각 선율이 감미롭게, 혹은 풍성히 느껴지는 것도 헤르베르트의 특징 중 하나.



CAL1636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
라흐마니노프 '악흥의 순간' 외

스테판 블레(피아노)

무게와 입체감을 살린 연주, 부피감 있는 녹음

프랑스에서 태어난 스테판 블레(b.1969)의 러시아 레퍼토리 모음곡이다. 왼손에 실리는 무게감과 한껏 멋을 부린 오른손의 연주가 인상적이다.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이 중심에 있지만 블레의 진가는 스크랴빈의 전주곡(Op.22-3)과 연습곡(Op.2-1/8-12), 라흐마니노프 '악흥의 순간'과 그의 전주곡(Op.22-7)과 연습곡(Op.39-1)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고 있다. 진중한 느낌을 살리고자 하는 블레의 마음이라도 읽은 듯 녹음도 맑은 공간감으로 피아노의 울림을 살리기보단 원곡이 지니고 있는 화성적 부피를 살리고 있다. 에세이스로도 활동하는 이답게 블레가 직접 쓴 해설지(프랑스 · 영어)가 수록되어 있다.

CAL1637 [CD+보너스 DVD]

쇼팽: 연습곡 Op.28, 녹턴 8 · 13번 외

미하일 루디(피아노)

쇼팽의 깊이와 섬세함을 살리다

러시아 태생의 피아니스트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보를 잇고 있는 미하일 루디(b.1953)는 칼리오페 레이블에서 스크랴빈 앨범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쇼팽의 곡을 담은 이 앨범은 CD와 DVD로 구성되었다. CD와 DVD에는 쇼팽의 녹턴 8 · 13번, 연습곡 Op.28이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다(CD에는 소나타 2번 수록). 맑은 음질의 CD를 통해 유연하고 깊이 있는 음색으로 섬세한 파동과 멜로디 라인이 돋보이는 수연을 접할 수 있다. DVD에 들어 있는 보너스 영상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통해 루디의 음악관과 러시아 피아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55분 분량/프랑스어, 영어 자막 제공]

CAL1638

제라르 플레의 바이올린이 빚내는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제라르 플레(바이올린), 피에르 레아크(피아노), 크리스토프 헨켈(첼로)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 · 2번을 담은 앨범으로, 정갈하고 밀도 있는 음향이 느껴진다. 레아크의 피아노는 쾌활하면서도 날카롭다. 풍부한 비브라토와 여유 있는 보잉으로 풍만한 음향을 구사하는 헨켈의 넉넉함과 명확한 아티큘레이션의 변화를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제시하는 플레의 치밀함이 조화되고 있다. 국내에도 몇 번 내한하여 잘 알려진 제라르 플레의 색채감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Capriccio

www.capriccio.at

C5290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레방아간의 아가씨

보 스코부스(바리톤), 스테펜 블라다르(피아노)

리트의 서정성과 드라마틱한 표현력을 겸비한 비교할 수 없는 호소력

슈베르트의 가곡은 혁명이었다. 가창보다는 감상을 위한 것이고, 가사는 극적인 시나리오로 확장되어 있다. '아름다운 물레방아간의 아가씨'는 이러한 특징을 극명히 보여준다. 기능공이 되기 위해 길을 떠난 젊은이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견습공으로 일하게 된다. 그는 그 아가씨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사냥꾼의 등장으로 실연하고 시냇물에 몸을 던진다. 오페라와 가곡을 넘나드는 보 스코부스의 음성은 리트의 서정성과 드라마틱한 표현력을 겸비하여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호소력을 갖추었다.

C5296

프란츠 & 칼 도플러: 플루트 음악 전곡 2집

클라우디 아리마니(플루트), 잉그리드 케르테시(소프라노), 엘체 시립 관현악단 등

플루트 낭만음악의 최고봉, 도플러 형제가 플루트에 실었던 삶의 노래

오늘날 비르투오소 플루트 음악은 도플러 형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플루트 음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음반에는 형인 프란츠의 '안단테와 론도'와 동생인 칼의 '목동의 노래', 그리고 둘의 합작인 '프라하의 추억' 등 오리지널 작품을 수록했다. 또한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던 오페라 멜로디 편곡도 들을 수 있다. 이 음반에는 모차르트 '돈 지오바니', 구노 '파우스트', 부알디외 '블랑슈 부인' 편곡이 수록되었다. 이 곡들은 기교적이면서 경쾌하며, 진지하고 서정적인 다중적인 면들이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C5315

드보르작: 유령신부

샤투로바(소녀), 브레슬리크(죽은자), 빈 징아카데미, ORF 방송교향악단, 마이스터(지휘)

'오페라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야심적인 드라마틱 칸타타

드보르자크의 경우 3년이 채 되지 않는 미국 체류 시기의 작품들이 자주 연주된다. 반면에 대부분의 삶을 살았던 체코에서의 작품들은 비교적 접하기 어려운데, 43세 때의 작품인 드라마틱 칸타타 '유령신부'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걸작이다. 드보르자크는 합창곡으로 유망주의 반열에 올랐으며, 합창곡으로 브람스의 눈에 띌 정도로, 그의 합창 작곡은 최고 수준이었다. '유령신부' 작곡 당시는 이미 여덟 개의 오페라를 완성한 때로, 그만큼 이 곡은 콘서트용 오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낭만적이고 극적인 표현력을 갖추고 있다.

C8016

마스네: '르 시드', '타이스', '신데렐라' 발레 모음곡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네빌 마리너(지휘)

마스네의 그랑 오페라에 포함되었던, 미처 몰랐던 아름다운 발레 음악들

줄 마스네는 프랑스 낭만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프랑스 오페라는 화려하고 장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반드시 발레가 포함되어있어야 했다. 이것을 '그랑 오페라'라고 말한다. 마스네 역시 그랑 오페라 작곡가로서, 그의 오페라에는 발레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늘날 이 부분만 콘서트에서 연주하기도 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발레모음곡들은 '르 시드', '타이스', '신데렐라' 세 오페라에 포함된 발레 장면을 모은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극적이며 화려하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C8017

D. 스카를라티: 16곡의 소나타

톤 코프만(하프시코드)

서정적인 안식과 타오르는 열정을 모두 담은 고음악 거장의 연주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가 J.S.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난 작곡가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만큼 그의 음악은 대단히 혁신적이었으며, 18세기 중반부터 휘몰아치기 시작한 고전 양식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소나타가 중심에 있다. 고음악의 거장 톤 코프만은 이 음반에서 열여섯 곡의 소나타를 녹음했다. 그의 하프시코드 연주는 예스러운 장식과,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서정적인 안식과 타오르는 열정을 담은 멜로디 모두를 효과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C5294

울만: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소나타 7번, 변주곡과 이중푸가

모리츠 에른스트(피아노), 도르트문트 필하모닉, 가브리엘 펠츠(지휘)

울만의 초기와 중기, 후기의 음악을 한데 엮은 비운의 연대기

보헤미아 출신의 오스트리아 작곡가인 빅토르 울만은 쇤베르크의 제자이자 재능있는 피아니스트였지만,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프라하 시절에 작곡된 피아노곡인 '변주곡과 이중푸가'는 쇤베르크의 12음기법으로 작곡되었으며, '피아노 협주곡'은 후기낭만의 드라마와 현대적인 날카로움이 잘 어우러져 있다. 수용소에서 작곡된 '소나타 7번'은 세상을 떠난 해에 작곡된 마지막 소나타로, 오히려 프로코피에프를 연상케 하는 재치 있는 멜로디와 명료한 리듬으로 유쾌하고 흥미로운 작품이다.

C8008

하이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의 마지막 일곱 말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카메라타 아카데미아, 산도르 베그(지휘)

헝가리를 대표하는 거장 산도르 베그의 거장다운 무게감이 돋보이는 명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했던 일곱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내용을 모은 것이다. 이 말씀은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중 하이든의 작품이 가장 돋보인다. 그의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은 현악사중주, 관현악, 오라토리오 등의 버전이 있는데, 이 음반은 관현악 버전을 수록했다. 서주와 각 문장을 부제로 하는 일곱 악장, 그리고 마지막 지진까지 총 아홉 악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산도르 베그는 20세기 헝가리 음악의 상징적인 존재로, 이 연주에 그의 거장다운 무게감이 한껏 실려 있다.

C8012

텔레만: 마태수난곡

요헨스(복음사가), 메르텐스(예수), 라인 칸토라이, 클라이네 콘체르트, 헤르만 막스(지휘)

프랑스 오페라의 요소를 적용하여 한껏 극적이며 독특한 텔레만의 수난곡

텔레만은 대단히 호기심이 많은 작곡가였다. 그는 그가 구한 세상의 다양한 악기를 연구하고 연주했으며, 그가 접한 세상의 다양한 음악 양식을 자신의 음악에 넣고자 했다. 텔레만이 65세 때의 작품인 '마태수난곡'을 통해 시도한 것은 프랑스 오페라에서 사용되었던 레치타티보 양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양식은 박자가 수시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아리아를 다양한 분위기의 짧은 아리오소로 만든 것 또한 프랑스적인 접근이었다. 덕분에 텔레만의 '마태수난곡'은 극적인 요소가 한껏 고조되었으며, 당시 독특한 음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C8018

모차르트: 레퀴엠, 아베 베룸 / 브루크너: 세 개의 모테트

첸치치(소프라노), 레진(알토), 크나프(테너), 슈바르츠(베이스), 코러스 비에넨시스, 빈 폴크스오퍼 심포니 오케스트라, 페터 마르쉬크(지휘)

빈 소년합창단과 빈 합창단, 그리고 빈의 관현악단이 만든 진정한 빈 사운드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그의 숙련된 모든 음악적 기법이 녹아있는 걸작이다. 종교적인 미사곡임에도 구시대적인 완벽한 푸가와 새로운 스타일인 인간적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이 공존함으로써 18세기 음악을 종합해낸 것이다. 또한 독특한 관현악의 사용과 연결구 없는 급변하는 진행 등 대단히 신선하고 과감한 모차르트의 젊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 음반은 빈의 앙상블이 대거 참여하여 빈의 사운드를 들려주며, 특이하게도 소프라노와 알토를 모두 카운터테너가 부른다. 알토를 맡은 데렉 리 레진은 영화 '파리넬리'의 노래로 유명하다.

C8019

고세크: 사냥 교향곡, '미르차' 협주교향곡, 열일곱 파트 교향곡 등

콘체르토 쾰른, 베르너 에어하르트(지휘)

파리에 고전음악의 붐을 일으킨 고세크의 교향곡들

만하임과 빈을 중심으로 갈랑 양식의 고전음악이 번져갔던 시대에 프랑스아-조제프 고세크는 파리에서 고전음악의 불을 지폈던 인물이다. 그의 교향곡들은 악장 수를 자유스럽게 취하고 있으며, 각 악장의 형식 또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된다는 점이 빈악파의 교향곡과는 다른 점이다. 혁명 전의 음악들은 하이든의 영향이 많이 보이지만, 혁명 후 마지막 교향곡인 '열일곱 파트 교향곡'은 베토벤풍의 탄탄한 구조를 갖춘 작품으로 발전한다. 특히 이 곡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이전에 가장 위대한 프랑스 교향곡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Cedille www.cedillerecords.org

CDR 90000170

브람스 피아노 5중주 & 슈만 : 피아노 4중주 1번

퍼시피카 현악 사중주단

과거와 현재, 소중한 만남의 산물 – 매력적인 활기

인디애나 대학 제이콥스 음대 상주 현악사중주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퍼시피카 현악 사중주단은 그레미상과 더불어 '멘델스존 현악 사중주 전집', '소비에트의 경험 : 쇼스타코비치와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 작곡된 현악사중주' 시리즈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브람스와 슈만의 실내악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보자르 삼중주단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머나헴 프레슬러가 합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직곡가와 연주자들에 담긴 소중한 만남은 시간을 초월하는 매력적인 활기로 가득하다. 적극 추천한다.

CD Accord www.cdaccord.com.pl

ACD225–2

베토벤: 첼로 소나타 1, 2번, '유다스 마카베우스'에 의한 12 변주곡

야로슬라프 틸(첼로), 카타쉬나 드로고슈(포르테피아노)

폴란드와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두 음악가의 센스 넘치는 해석

베토벤의 초기작품인 작품5의 첼로 소나타 두 곡은 첼로 반주가 있는 피아노 소나타의 초기 기악소나타 형태에 가깝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첼로가 피아노와 역할을 분담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시마노프스키 음악원과 크라쿠프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드로고슈의 포르테피아노는 음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드레스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수석첼리스트이자 브로츠와프 바로크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야로스와프 틸은 반주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부분에서는 적당히 대응하는 센스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다.

ACD229–2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버르토크: 광시곡 1번, 시마노프스키: 녹턴과 타란텔라

피오트르 타르홀리크(바이올린), 모니카 빌린스카-타르홀리크(피아노)

순수한 소리를 통해 음악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부부 음악가의 연주

폴란드 국립 방송 교향악단의 악장인 타르홀리크와 부흐빈더로부터 지도를 받은 피아니스트 빌린스카가 '동유럽의 보석'이라는 타이틀로 네 곡의 이중주 작품을 연주했다. 부부이기도 한 이 두 연주자는 화려한 극적 표현보다는 순수한 소리를 통해 음악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있다.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에서 선율의 우아한 곡선을 강조하며, 버르토크의 '광시곡 1번'에서는 긴 호흡을 지닌 레가토로 노래한다. 시마노프스키의 '녹턴과 타란텔라'는 여유로운 감상이 돋보이며, 레피안카의 '꿈'은 소박한 매력을 놓치지 않는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6220631

랑고르: 피아노 작품 3집

베리트 요한센 탕에(피아노)

시각적 이미지를 음악으로 그리는 파스텔톤의 따뜻한 음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림처럼 본다." 덴마크의 작곡가 루에드 랑고르의 음악에는 자신의 이 말처럼 어떠한 시각적 이미지가 서려있다. 그의 작품에는 '밤에 도둑처럼', '곤충관'–9개의 퍼즐 그림, 환상곡 '그림자 삶', '깜박이는 가을 불빛'–분위기 있는 그림, 작은 피아노 소나타 '베긴 수도원', 작은 소나타 '수녀원 교회', 기교적인 환상곡 '권태를 느끼는 그리스도의 신부' 등 흥미로운 제목들이 붙어있다. 음악은 비교적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 언어로,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특정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극적인 움직임으로 연출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Divine Art

www.divineartrecords.com

DDA25138

멘델스존: 연주회용 음악 1번, R. 슈트라우스: 관을 위한 소나티나 1번, 애덤스: 날리 버튼 등

엘리자벳 조던, 린지 마쉬(클라리넷), 노던 챔버 오케스트라, 스티븐 발로(지휘)

위대한 작곡가들의 매력적인 클라리넷 음악을 들어볼 희귀한 기회

엘리자벳 조던은 노던 챔버 오케스트라의 수석 클라리네티스트이며, 린지 마쉬는 할레 오케스트라의 수석 클라리네티스트를 역임했다. 그들은 두 대의 클라리넷 혹은 바셋혼과 클라리넷을 위한 독특한 음악을 녹음했다. 바셋혼은 클라리넷보다 길고 저음을 내는 악기로, 멘델스존의 희귀한 작품인 '연주회용 음악 1번'을 협연했다. R. 슈트라우스의 '소나티나 1번'은 만년의 작품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전원풍의 음악이다. 존 애덤스의 '날리 버튼'은 클라리넷으로 그리는 우리들에 대한 소묘이며, 케빈 말론의 '최후의 기억'은 기계적 유희가 돋보인다.

DDA25145

에니그마 – 피아노 독주 & 실내악 작품집

엘스페스 와일리(피아노), 캐서린 백하우스(메조소프라노), 클레어 오버버리(플루트), 헤티 프라이스(첼로), 알레사 비티(비올라)

엘가 탄생 160주년 기념 음반, '에니그마 변주곡'의 피아노 독주 버전

올해 6월은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엘가 탄생 16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피아니스트 엘스페스 와일리는 엘가의 대표작 '에니그마 변주곡'을 비롯해 자신이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했던 실내악 프로젝트들을 음반에 담았다. 흔히 접하기 어려운 '에니그마 변주곡'의 피아노 독주 버전(엘가 편곡)은 관현악 버전과는 또 다른 오롯한 매력이 있다. 또 다른 영국의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들은 엘가의 작품만큼 이나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웅변한다. 작품에 대한 몰입과 견실한 앙상블은 작곡가에 대한 헌사로 손색이 없다.
[니콜라스 색먼, '폴리오 I'(20–25번 트랙), 세계 최초녹음]

Dynamic

www.dynamic.it

CDS7783

마렝 마레 & 생트 콜롱브: 비올라 다 감바 작품집

파올로 비오르디(비올라 다 감바)

내면을 휘감는 비올의 그윽한 공명, 영화의 한 장면

영화 '세상의 모든 음악'은 마렝 마레와 생트 콜롱브라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의 존재와 함께 비올의 매력을 일반 대중에게 까지 알렸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본 음반에서 두 사람의 비올라 다 감바 작품들은 대화하듯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일 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 유리 케인 등과의 음반에서 활약한 바 있는 파올로 비오르디는 때로는 나지막이, 때로는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그윽한 공명을 선보이며 비올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비올의 선율과 공명을 살리는 또렷한 음질은 감흥을 더한다.

CDS7787 **[추천음반]**

만돌린으로 편곡된 바흐와 비발디 작품집

플레트로 마우로 & 클라우디오 테로디 오케스크라(연주), 도리나 프라티(만돌린, 지휘)

만돌린으로 편곡된 바흐의 작품들, 비발디와 바흐의 접점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 중 기타와 첼로가 각각 독주 파트에 참여한 두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에서 독주 파트와 오케스트라 파트의 바이올린은 만돌린으로 대체되어 편곡되었다. 만돌린으로 편곡된 바흐의 작품들은 비발디의 협주곡을 편곡하며 작곡 기법을 연마했던 바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만돌린이 선사하는 비발디와 바흐의 접점은 은근하지만 독특하면서도 고혹적이기까지 하다.
통주저음의 우아한 공명을 타고 종종걸음 하는 만돌린의 파릇파릇한 색감은 레이블 특유의 멋진 음향 속에 일렁인다.

Farao

www.farao-classics.de

B108098

홀스트: 목관과 현을 위한 육중주, 목관오중주, 목관과 피아노를 위한 오중주 등

앙상블 아라베스크, 안수진(피아노)

바그너적인 중후함과 R. 슈트라우스적인 재치를 겸비한 홀스트의 음악예술

블록버스터 클래식 '행성'의 작곡가 구스타브 홀스트는 '행성'을 제외한 작품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에, 당시 영국 음악계의 민족주의 성향과 맞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그의 음악들은 오늘날에도 연주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실내악곡들은 바그너적인 중후함과 R. 슈트라우스적인 재치를 겸비하고 있는, 전환기의 영국 음악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앙상블 아라베스크의 연주는 홀스트의 독일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밀도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Gramola www.gramola.at

99130
차이코프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
파울 바두라-스코다(피아노), 아드리안 불트, 아르투르 로진스키, 한스 스바로프스키(지휘)

고전음악의 노거장이 열정을 불태웠던 젊은 날의 중요한 기록
고전음악의 거장 파울 바두라-스코다는 젊은 시절에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로서 낭만음악에 열정을 쏟았다. 이 음반은 30세 전후인 1955~59년 사이에 녹음했던 세 곡의 낭만 협주곡을 수록했다. 그의 타건은 강렬하면서도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남다른 감수성을 들려준다.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 1번'은 음들이 명료하며 빠른 템포에서도 여유가 느껴진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협주곡'은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곡으로서 음색으로 접근하는 미적 감각을 일깨운다. 리스트의 '협주곡 1번'은 온 힘을 다해 연주하는 모습이 그대로 각인되어있다.

99131
Bridge to Beyond
앙투아네트 판 차프너(피아노)

100년 전 작곡가들이 꿈꿨던 감성적인 로맨틱 음악
앙투아네트 판 차프너는 4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이듬해 CBS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13세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프랑스에서 나디아 불랑제의 제자로 수학했다. 이후 세계를 무대로 정상급 음악가들과 연주했으며, 현재 빈 음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스크리아빈, 드뷔시, 사티, 시마노프스키, 풀렝크 등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연주했다. 이들의 작품들은 낭만음악과 오늘날의 음악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위치에 있다. 그들의 낭만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음악은 오늘날 로맨틱 음악의 원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135 [2CDs for 1,5]
헨델: 메시아 (전곡)
헤어푸르트너,페트로네,샤데,이믈러,잘츠부르크 바흐합창단,바흐콘소트 빈,두브로프스키(지휘)

빈을 대표하는 시대악기 연주단체가 완성한 메시아 전곡
폴란드 혈통을 가진 루벤 두브로프스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태생으로 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바흐 콘소트 빈을 창설하고 바로크 음악에 온 열정을 쏟고 있으며, 그와 이 단체는 빈을 대표하는 시대악기 음악가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이 음반은 2016년 3월 19일에 클로스터노이부르크 성당에서 있었던 부활절 연주회 실황으로,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수록했다. 관현악은 다양한 표정을 구사하며 각 곡의 성격을 드러내며, 솔리스트들은 극적인 표현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합창단은 각 파트들의 조화와 균형이 알맞게 조정되어있다.

99103
요제프 마이세더: 실내악 작품 1집
리시 사중주단(연주)

연주자들의 애정으로 재탄생한 마이세더의 실내악 작품 1집
오늘날 빈의 자허 호텔 옆길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Maysedergasse) 요제프 마이세더는 19세기 빈에서 활동한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로서 하이든의 '십자가 위 일곱 말씀',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슈베르트의 'F장조 미사' 초연 당시 악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900여개가 넘는 그의 작품들은 유럽 각지에서 인쇄되었으며, 비외탕, 올레 불, 리스트, 보테시니 등에 의해 널리 연주되었다. '바덴의 추억' 등 최초로 녹음되는 마이세더 실내악 작품들의 우아함은 그의 이름을 알리려는 연주자들의 열정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99125
슈베르트: 메타모르포젠(Metamorphosen, 변용) – '겨울 나그네'에 의한 즉흥 연주
이 디오스쿠리(연주 – 에드가 운터키르히너(색소폰), 볼프강 호바트(피아노))

색소폰으로 변용된 겨울나그네의 독백
슈베르트와 덱스터 고든이 만났다면 어떤 느낌일까. 쫓아오는 고통과의 끊임없는 술래잡기 속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매 순간이 음악으로 가득차 있었던 이들의 목소리는 아마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다른 어느 악기보다 색소폰이 지닌 염세적인 스펙트럼에 더해 음악 이외의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들에서 얻은 영감에 기초한 즉흥 연주는 음성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겨울 나그네의 독백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색소폰으로 변용된 겨울 나그네의 독백, 새로운 경험은 경이롭기만 하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720
코미타스: 7개의 무언가, 7개의 민속무곡,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7개의 소품 등
미카엘 아이라페티안(피아노), 블라디미르 세르게예프(바이올린)

아르메니아 음악의 아버지 코미타스가 전 세계에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아르메니아는 음악 강국으로서, 하차투리안 등 유수한 음악가를 배출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국부처럼 숭상하는 음악가 있으니, 바로 코미타스이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민속음악을 토대로 이국적인 음악을 만들었지만, 그의 음악은 전 세계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인류의 언어가 있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민속노래를 주제를 대위적으로 풀어가기도 하고, 피아노의 저음과 고음을 음색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 여백에서 울려나오는 명상적인 잔향은 독특한 영적 감응을 불러일으킨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53–55 [3CDs for 1,5]
그랜드 피아노 – 더 키 컬렉션

4세기에 걸친 피아노 음악의 역사를 세 장의 음반으로 섭렵하는 특별 프로젝트
'그랜드 피아노'가 발매한 74개의 앨범에서 한 곡씩 선정하여 세 장의 음반에 모았다.
베토벤의 스승 네페부터 21세기의 작품까지 피아노 음악사를 망라한 특별 프로젝트 앨범이다.
이 앨범에는 베토벤, 생상스, 그리그, 부조니, 사티, 메트네르, 에네스쿠, 거슈윈, 하차투리안, 글래스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곡가들을 비롯하여, 반할, 호프마이스터, 발라키레프, 체레프닌, 슐호프, 로슬라베츠, 루리에, 그레인저, 솔랄 등 건반음악에 한 획을 그은 작곡가들까지 포함하여 음악적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세계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또한 최상이다.

GP724
로주–뒤카스: 여섯 개의 전주곡, 네 개의 연습곡, 두 개의 뱃노래, 작은 모음곡 등
조엘 해스팅스(피아노)

음향과 음색에 대한 튀는 감각을 보여주는 로주–뒤카스의 젊은 시절 피아노곡
장 로주–뒤카스는 보르도 출신으로, 포레의 제자였으며, 라벨과 동창생이었다. 그의 음악은 20세기 초 프랑스를 휩쓸었던 인상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소노리테'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음향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으며, 하늘 높이 올라 거칠 것 없이 유영하는 듯한 청량감과 낙천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두 개의 '뱃노래'는 포레의 영향을 받은 미적 감각을 보여주며, '리듬'은 라벨을 연상시키는 영롱한 음색을 들려주지만 더욱 자유롭다. '여섯 개의 전주곡'과 '네 개의 연습곡'은 드뷔시적이면서도 불협화적인 시도가 대단히 효과적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32
코젤루흐: 피아노 소나타 29~31번
켐프 잉글리시(포르테피아노)

모차르트, 클레멘티 등 당대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걸작 소나타
체코 출신의 레오폴트 코젤루흐는 18세기 말 고전시대에 빈에서 활동했던, 당대 최고의 건반 연주자였다. 그의 건반을 위한 작품들은 큰 인기가 있었으며, 후에 베토벤과 슈베르트에게 음악형식에 대한 안목을 키워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코젤루흐 소나타 8집에는 40대였던 1789년에 작곡된 소나타 29번과 30번, 그리고 1791년에 작곡된 소나타 31, 32번을 완성했다. 이 곡들은 풍부한 화음으로 인상적인 소노리티 지니고 있으며, 또한 수준 높은 극적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모차르트와 클레멘티의 걸작들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작들이다.

[세계 최초 녹음]

GP743–44 [2CDs for 1,5]
로슬라베츠: 피아노 음악 전곡
올가 안드류셴코(피아노)

스크리아빈과 쇼스타코비치를 잇는 러시아의 역사적 작곡가의 숨길 수 없는 열정
"20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로부터 절찬을 받은 로슬라베츠는 초기에는 스크리아빈의 영향을 받았으며, 곧 러시아의 중요한 미래파 작곡가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소련이 들어서면서 자신의 음악노선을 수정해야 했으며, 그만큼 과거의 명성은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합성 코드' 등 자신만의 작곡법을 연구했던 미래지향적인 작곡가로서, 최근에 그의 음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알렉세이 루비모프의 제자인 올가 안드류셴코는 로슬라베츠의 피아노 음악을 "불과 얼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극단의 표현력을 보여준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65
얀 래츠: 피아노 소나타 1~4, 9, 10번
니콜라 호르바트(피아노)

동유럽 특유의 미니멀리즘적 반복이 엿보이는 음악적 드라마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얀 래츠는 아르보 패르트 등 비슷한 연배의 에스토니아 작곡가들과는 다른 음악세계를 가지고 있다. 오소독스의 종교적 색채는 적으면서 오랫동안 영화음악 작업을 하는 등 드라마적인 요소에 강점을 보인다. 27세였던 1959년에 작곡한 초기의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현대적이고 과감한 선율과 극단적인 극적 대비가 인상적이며, 후기의 소나타 9번과 10번은 완숙한 음향을 들려준다. 여기에 동유럽 특유의 미니멀리즘적 반복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특이하게도 4번 '콰시 비틀즈'에는 비틀즈 풍의 멜로디가 녹아있다.

Gothic www.gothic-catalog.com

GOTHIC

G–49303
오 거룩한 잔치여: 성 바실리오 성당에서 연주된 종교음악
세인트 토마스 대학 싱어즈(합창), 브래디 냅(지휘)

잊을 수 없는 매력을 남기는 종교 음악의 향연
텍사스 세인트 토마스 대학 내에 위치한 성 바실리오 성당은 동서양의 카톨릭 교회를 혼합해 놓은 듯한 독특한 인상으로 유명하다.
성 바실리오 성당에서 녹음된 팔레스트리나, 생상스, 뒤프레, 앤서니 볼드윈, 리차드 알레인 등의 작품들은 익히 유명한 작품들은 아니지만, 모두 잊을 수 없는 매력을 남기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폭 넓은 레파토리와 더불어 성 바실리오 성당의 투명한 음향을 살린 음질 역시 인상 깊다. 합창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구비해야할 음반이 아닐까 싶다.
다가오는 부활절에 감상해도 좋을 법한 음반이다.

IBS Classical

www.ibsclassical.es

2011년에 설립된 스페인의 음반사인 **IBS Classical은** 클래식 분야에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음반을 제작한 음악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본 레이블에서 제작한 음반들은 2016년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클래식 앨범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다섯 번의 '멜로마노스데 오로' 상 등 많은 상들을 수상했다. 또한 저명한 음악전문지인 '스케르초'로부터 세 번의 "이례적으로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고, 여러 음반들이 '리듬'으로부터 '하이 퍼레이드'라는 높은 등급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팡파르'로부터 2015년 '올 해의 음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IBS 클래시컬은 고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그리고 독주곡부터 대규모 관현악곡과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스페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음악적 유산을 재발견하고 조명하는 작업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예술적 재창조에도 자극을 주는 등 음악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IBS102015 [3CDs]
쇼스타코비치: 24개의 전주곡과 푸가
마리사 블라네스(피아노)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감성과 고전성에 남다른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명연
쇼스타코비치는 관현악과 합창으로 소련에 동조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내악으로는 대부분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거나 고전적인 음악으로 현실을 외면했다. '24개의 전주곡과 푸가'가 바로 후자에 속한다. 바흐의 음악에 영감을 얻어 24개의 서로 다른 조성으로 만든 전주곡과 푸가의 쌍으로 작곡되어 총 48곡으로 구성되어있다.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서정성과 비애감이 깃들어있지만 감정을 컨트롤하여 지나침이 없다. 스페인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인 마리사 블라네스는 감성과 고전성에 남다른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IBS12017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G단조/ 프랑크: 첼로 소나타 A장조
아시에르 폴로(첼로), 마르타 사발레타(피아노)
러시아와 프랑스의 로맨티스트가 전하는 감성적인 첼로 음악
러시아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멜로디에는 우수에 찬 감성이 진하게 깃들어있으며, 주춤거리는 듯한 리듬에는 아쉬움이 묻어있다. 완전한 해결을 피하는 화성에는 외지에서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이 서려있다. 이러한 그에게 첼로는 피아노보다도 어울리는 악기일 것이다. 그의 '첼로 소나타'는 그 증거이다. 프랑스 낭만 음악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세자르 프랑크는 첼로 음악을 쓴 적이 없지만,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본연적인 내면적인 탐구는 첼로의 음색에 매우 어울린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IBS132016
바카리세: 피아노 협주곡 4번,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 협주곡
가르바요(피아노), 베르코비치(바이올린), 고메스(첼로), 말라가 필하모닉, 에스텔레스(지휘)
스페인 풍의 경쾌함과 낭만적인 서정미가 어우러진 스페인 클래식의 정수
살바도르 바카리세(1898–1963)는 마드리드 출신으로 스페인의 음악을 기반으로 이해하기 쉬우며 가벼운 음악을 추구했다. 스페인 시민전쟁 이후 프랑스로 망명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파리에서 활동했다. 그는 관현악과 오페라, 실내악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으며, 그 중에서도 협주곡이 잘 알려져 있다. 이 음반에는 그의 만년의 작품들인 '피아노 협주곡 4번'과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비교적 초기작인 '첼로 협주곡'을 수록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바카리세 특유의 스페인 풍의 경쾌함이 잘 드러나 있으며, 낭만적인 서정미도 간직하고 있다.

[세계 최초 녹음]

IBS52015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베버: 클라리넷 오중주
호세 루이스 에스텔레스(클라리넷), 유시아 사중주단
따뜻한 음색과 부드러운 선율로 안식의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앙상블
호세 루이스 에스텔레스는 스페인의 저명한 클라리네티스트로서 그라나다 시립 관현악단의 솔리스트이며, 산 세바스티안 음악원의 교수이다. 또한 스페인 유수의 관현악단을 두루 지휘하는 지휘자로서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음반은 클라리넷을 위한 실내악 작품으로서 고전 중의 고전인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와 베버의 '클라리넷 오중주' 두 작품을 수록했다. 에스텔레스의 연주는 따뜻한 음색과 부드러운 선율을 들려주며 감상자로 하여금 안식의 감동을 준다. 유시아 사중주단은 여유 있는 편안한 연주로 최상의 앙상블을 들려준다.

IBS82015
보테시니: 몽유병 여인 환상곡/ 미셰크: 소나타/ 파야: 유명한 스페인 노래 모음곡 등
안토니오 토레스 올모(더블베이스), 루이사 아마디(피아노)
더블베이스의 젊은 거장이 들려주는 과감한 도전과 더블베이스의 색다른 모습
올모는 더블베이스 연주자 최초로 파리의 PIM/INAEM 상을 받은 주인공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음반은 더블베이스를 위해 여러 명곡을 작곡한 보테시니의 벨리니 오페라 선율을 주제로 하는 '몽유병 여인 환상곡'을 첫 곡으로 수록했다. 최고의 기교를 요구하는 이 작품에서 올모는 자연스러운 선율을 들려주며 자신의 기량을 뽐낸다.
체코의 낭만주의자 미셰크의 '더블베이스 소나타'는 브람스에 버금가는 서정미와 고전미의 배합을 들려주며,
파야의 '유명한 노래 모음곡'은 더블베이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Indesens

www.indesensdigital.fr

Inde078

들르뤼 · 코플랜드 · 번스타인 · 아이브스 등의 관악곡들

에릭 오비에(트럼펫), 필리프 베흐드(클라리넷), 니콜라스 프루스트(섹소폰), 프랑스 공화국 근위 음악대 외

관악기 든 파리지앵의 미국 음악

미국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조르주 들르뤼, 나디아 블랑제를 사사한 코플랜드을 비롯하여 바버, 번스타인, 찰스 아이브스 등 미국과 연관된 작곡가들이 남긴 관악 레퍼토리들이 수록되어 있다.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제외하곤 파리 오케스트라 · 파리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등의 관악주자들이 협연하고 실내악을 선보인다. 그 중심에는 트럼페터 에릭 오비에가 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국제콩쿠르의 개최자이기도 한 오비에는 들르뤼, 코플랜드, 번스타인의, 아이브스 곡의 협연을 맡고 있다. 강렬하고도 섬세한 촉감으로 소리의 부피를 자유롭게 연출하고 증감시키는 그의 변화무쌍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Inde080 [2CDs for 1]

20세기 프랑스 팡파르

미셸 베크(트롬본/감독) & 티에리 캉스(트럼펫/감독), 르 퀴리브 프랑세(트럼펫 · 호른 · 트롬본 · 튜바)

청량한 음질에 담은 프랑스 금관의 매력

'20세기 프랑스 팡파르'라는 제목이 붙은 CD1, '바흐부터 번스타인'이라는 제목의 CD2로 구성된 이 앨범을 통해 오늘날 프랑스 금관문화의 감각을 느껴볼 수 있다. 청량한 음질이 압권. 연주를 맡은 '르 퀴리브 프랑세'는 파리 오케스트라 · 프랑스 국립관현악단 ·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의 일급 연주자들이 모여 1989년에 만든 단체로, 레퍼토리에 따라 10~18인조로 운영하고 있다. CD1에는 듀크, 앙리 토마시, 졸리베, 드뷔시, 영화음악가 조르쥬 들르쥐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9곡을, CD2에는 바흐, 멘델스존, 로시니, 드뷔시, 바버, 피아솔라, 번스타인 등의 9곡을 수록했다. 해설지(프랑스 · 영어)에는 이들의 레퍼토리에 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Inde081

바흐 외 크리스마스 레퍼토리 모음

브누아 도(트럼펫), 피에르 캥뷔리언 · 빈센트 리호(오르간)

앵데장 레이블의 설립자 브누아 도의 트럼펫

브누아 도(Benoît d'Hau)는 프랑스의 유명 트럼페터이자, 관악 레퍼토리를 발굴 · 발견하여 음반 제작하는 데에 열정을 쏟는 것으로 유명한 앵데장 레이블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 앨범을 통해 그가 직접 연주한 트럼펫 소리를 접할 수 있다. 앨범은 그가 연주하는 바흐 · 퍼셀 · 헨델 · 비제 · 멘델스존 · 슈베르트 · 구노 · 프랑크 등의 곡과 성가 26곡을 담은 것으로, 브누아 도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연주하며 가슴에 젖어드는 감동을 전한다. 굳이 트럼펫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파이프오르간의 환상적이고 시적인 사운드만으로도 이 음반의 매력이 십분 발휘된다.

Inde082

카롤 뷔파 작품집(6곡 수록)

카롤 뷔파(작곡 · 피아노), 에리크 오비에(트럼펫), 마리-피에르 라그래망(하프), 프랑스 공화국 근위 음악대

멜랑콜리하게, 다정다감하게, 혹은 몽롱한 카롤 뷔파의 작품집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현대음악이지만, 수록된 곡의 멜랑콜리하고 프렌치 시크의 선율은 귓가를 잡아끈다. 카롤 뷔파는 1973년 프랑스 태생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2000년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 중이다. 수록된 여섯 곡은 카롤 뷔파의 매력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한 돋보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터. 부드러우면서도 탐미적인 세기말적 음조로 가득 찬 트럼펫과 현악 앙상블을 위한 협주곡의 멜랑콜리, '블로우 업'에서 생생히 느껴지는 재즈 리듬, 몽롱한 하프 독주의 '룸브흐를 위한 찬사', 느린 흐름이 매력적인 '그림자 풍경', 그리고 다양한 음악적 실험이 콜라주된 '불꽃놀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트럼페터 에리크 오비에, 하피스트 마리-피에르 라그래망 등의 연주가 작품의 완성도를 한껏 높인다.

Inde083

19~20세기 프랑스 작곡가들의 바순 레퍼토리(15곡)

로라 베네트 카메롱(바순), 로저 부트리(피아노 · 작곡)

로맨틱 바순의 극치!

19~20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작곡가 이베르, 드뷔시, 포레, 폴 비달, 가브리엘 피에르네, 장-미쉘 다마즈, 앙리 뒤티외가 바순과 피아노를 위해 작곡했던 15곡을 수록한 앨범이다. 현대음악 모음이기에 전위적인 음악을 떠올리겠지만, 이 앨범으로 프랑스 작곡가들이 바순을 통해 구현하는 로맨스의 극치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맨틱하다. 로라 베네트 카메롱의 바순은 한없이 노래한다.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 피아니스트 로저 부트리(b.1932)의 6악장으로 된 소나타는 바순과 카메론 특유의 부드러운 매력을 십분 살리고 있으며, 그의 반주 역시 바순의 숨결을 보듬는다.

Inde084

군기 바짝 든 현악기들의 노래

세바스티앙 비야드(지휘), 프랑스 공화국 근위 음악대

공식적인 영문명은 'The Orchestra of the French Republican Guard'로, 번역하자면 '프랑스 공화국 근위 음악대'라 할 수 있겠다. 한국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악단은 현악 중심 오케스트라로 1848년의 기원을 갖고 있다. 세바스티앙 비야드의 지휘는 현의 노래를 다채롭게 끌어내되, 근위 음악대라는 특징 때문인지 절도 있는 박자감과 깔끔한 성격을 압도적으로 살려내고 있다. 러셀의 신포니에타 Op.52와 브리튼 '단순 교향곡'에선 스피커를 뚫고 나올 듯한 꽉 찬 볼륨감이 피부로 느껴지며,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과 엘가 '서주와 알레그로'에선 합주의 질감을 아름답게 살리는 디테일함에 반하게 된다.

Inde085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드뷔시 '아라베스크' 외

장 프랑수와 뒤레즈(마림바 · 비브라폰 · 실로폰), 마리-피에르 뒤즈(피아노), 리차드 갈리아노(아코디언)

뒤레즈가 선보이는 '타악의 예술'

장 프랑스와 뒤레즈는 프랑스 공화국 근위 음악대의 타악기 연주자로 클래식 음악은 물론 재즈와 팝 등에도 능하다.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등 친숙한 프랑스 레퍼토리부터 피아솔라의 '망각'까지 클래식부터 탱고를 아우르는 다양한 반경을 느껴볼 수 있다. 뒤레즈의 타악기는 다른 타악기 외에 피아노, 현악 중주 등과 어우러지고, '망각'에선 피아솔라의 후예 리차드 갈리아노의 아코디언이 함께 한다. 각 곡을 담아내는 음질이 일품이다. 마림바 · 비브라폰의 공명을 맑고 디테일하게 담아내고자 한 배려가 곡 하나하나마다 느껴진다. 마림바와 피아노가 함께 하는 '아라베스크' 1번은 연주와 녹음이 압권이다.

Inde086

20세기 러시아 작곡가들의 트럼펫 협주곡 5곡

에릭 오비에 · 티에리 제베(트럼펫), 바슈타인 스틸(지휘) · 모스크바 심포니, 폴란드 라디오 방송교향악단 외

20세기 러시아 트럼펫 협주곡의 계보를 한 눈에!

음반 재킷에 적힌 '소비에트'라는 단어처럼, 20세기 러시아 작곡가들이 남긴 트럼펫 협주곡 모음집이다. 쇼스타코비치(1906~1975)의 피아노 · 트럼펫 · 관현악 Op.35를 비롯하여 아르카디 네스테로프(1918~1999), 세르게이 바실렌코(1872~1956), 알렉산더 아르투니안(1920~2012), 알렉산드라 파쿰토바(b.1929)의 트럼펫 협주곡이 수록되어 있다. 20세기 격동의 시기에 남긴 역작들로 서로 주고 받았던 음악적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앨범. 현대음악에 능한 프랑스 최고의 트럼페터 에릭 오비에가 쇼스타코비치 · 파쿰토바의 곡을 연주하고, 그 외의 곡은 소르본 음대 교수 티에리 제베가 맡았다.

Inde087

앙리 뒤티외의 실내악 5곡

파스칼 고하르(피아노), 다니엘 브레친스키(트롬본), 알레상드르 가티(오보에), 빈센트루카스(플루트), 마르크 트르넬(바순)

젊은 날의 초상. 앙리 뒤티외의 초기작 모음집

앙티 뒤티외(1916~2013)가 1942년부터 1948년까지 작곡한, 작곡가 일생의 초기작 5곡이 담겨 있다. 피아노 소나타 Op.1, 바순 · 피아노의 '사라방드의 행렬', 플루트 소나타, '합창, 카덴차와 푸가토', 오보에 소나타가 차례대로 담겨 있다. 이 곡을 쓸 때의 뒤티외는 파리 국립오페라의 합창단 지휘자, 라디오 프랑스의 음악국장이었다. 프랑스와 유럽을 풍미한 한 작곡가의 젊은 날의 초상과 음악적 뿌리를 느낄 수 있는 실내악 작품집이다. 작곡행위를 신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정하고 엄선한 소수의 작품들만 출판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니, 디티외와 현대음악 콜렉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

Inde088

플랑 · 생상 · 사티 등의 트럼펫을 위한 실내악

프레데리크 멜라르디(트럼펫), 에릭 오비에 · 알렉상드로 바티 · 스테판 거버트(트럼펫) 등

프랑스 트럼펫의 명장들이 한 자리에!

트럼펫을 위한 실내악 모음곡으로, 19~20세기에 활동했던 에네스쿠 · 리베니 · 플랑 · 생상 · 로베 · 사티 · 스트라빈스키 · 토마시 · 치플리치 · 가바예 등 아홉 작곡가의 대표적인 트럼펫 곡이 담겨 있다. 프레데리크 멜라르디는 다니엘 하딩이 이끌고 있는 파리 오케스트라 수석. 멜라르디의 달콤하고 침착한 프레이징이 매력적이며, 에릭 오비에 · 알렉상드로 바티 등 여러 트럼페터가 함께 하여 트럼펫의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한다. 트럼펫과 현대음악에 관심이 많은 이에게 적극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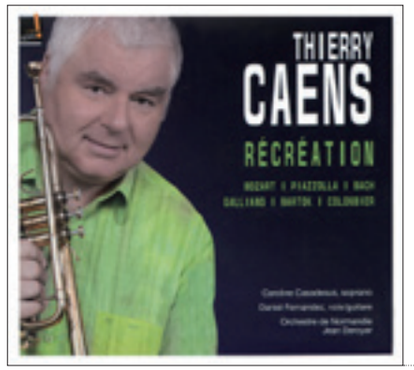
Inde089

이반 예브티치 · 쇼스타코비치의 트럼펫 작품집

에릭 오비에(트럼펫), 올라 루드너(지휘) · 벨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스나 소크(지휘) · 노비사드 실내오케스트라 외

트럼펫을 위한 음향적 실험

출시와 함께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앨범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반 예브티치(b.1947)가 피콜로 트럼펫과 C조 트럼펫을 위해 작곡한 4곡을 수록하고 있다. 예브티치의 트럼펫곡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반의 진가를 높여주는 이는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트럼페터 에릭 오비에이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 트럼펫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1번은 예브티치의 음악적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오비에의 연주는 안정된 구상력과 역동적인 추진력을 겸비했다.
분위기가 돌변하는 변화무쌍한 두 작곡가의 협주곡에서 이는 확실히 미덕으로 나타난다.



Inde091

바르톡 '루마니안 춤곡' 외 17곡

앵데장 레이블의 신념과 음질. 캉스의 트럼펫과 만나다!

앵데장 레이블은 트럼페터 브누아 도가 설립했다. 그래서 유독 트럼페터와 그 레퍼토리에 후하다. 티에리 캉스는 앵데장 레이블을 간판스타로, 여러 음반에 감독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클래식 음악, 민요, 탱고 등을 아울러 24곡이 들어가 있는 이 앨범은 앵데장 레이블 특유의 관악기를 고려한 세심한 레코딩 환경과 캉스의 음악적 넓이와 연주력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앨범이다.
민요 '푸른 옷소매', 가곡으로 유명한 요아킨 닌의 '잠 못 이루는 이의 노래'(소프라노), 바르톡 '루마니안 춤곡'(11~17track), 사티 '그노시엔느' 1번(노래 · 기타)은 이 음반으로만 맛볼 수 있는 명연주이다.
장 드호이어가 이끄는 노르망디 오케스트라의 반주력도 일품. 트럼펫과 척척 맞는다.

Inde092 **[추천음반]**

척 맨지오니 '필소굿' 외 16곡

티에리 캉스(트럼펫), 레오나르도 산체스(기타), 파트리스 카라티니(베이스)

트럼펫과 함께 하는 월드뮤직 순례기

트럼페터 브누아 도가 설립한 앵데장 레이블의 간판스타인 트럼페터 티에리 캉스의 트럼펫은 귓가에 부드럽고, 상쾌하게 녹아든다.
정말 각 곡이 전하는 느낌은 음반명처럼 'FEELS so good'이다. 2~4분의 유명 월드뮤직 17곡으로 구성된 이 앨범에서 캉수의 트럼펫은 레오나르도 산체스의 리드미컬한 기타와 재즈 베이시스트 파트리스 카라티니의 묵묵한 저음과 함께 흐른다.
세 사람 모두 편곡에 참여했다. 캉스의 사운드와 두 세션이 빚는 '리듬감'이 일품이다.
생동감 있는 레코딩으로 마치 현장에서 듣고 있는 듯하다. 트럼펫으로 구사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색채를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그리고 월드뮤직의 초심자부터 마니아까지 적극 권장해도 손색없는 음반이다.

J.S. Bach-Stiftung www.bachstiftung.com

'J.S. 바흐-재단'을 뜻하는 'J.S. Bach-Stiftung' 레이블은 스위스 장크트갈렌(생 갈렌, St. Gallen)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바흐-재단'은 바흐의 성악 작품 전곡을 연주할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모든 작품은 워크숍과 강의 등을 통해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한 달에 한 작품 씩 녹음(특히, 칸타타 작품의 경우에는 교회력에 맞춰 연주)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서적과 음반, 영상물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6년 첫 번째 녹음이 시작된 후 2030년까지 약 25년간 진행될 예정인 'J.S. 바흐-재단'의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오늘날 감상자들에게 위대한 작곡가의 위대한 작품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바흐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21세기 바흐 해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J.S. Bach-Stiftung'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레이블임에 틀림없다.

B384 [2CDs]
바흐: b단조 미사(bwv.232)
줄리아 도일(소프라노), 알렉스 포터(알토), 다니엘 요한젠(테너), 클라우스 메르텐스(바리톤),
장크트갈렌 J.S. 바흐-재단 합창단 & 오케스트라(연주), 루돌프 루츠(지휘)

바흐의 모든 것이 담긴 작품의 전모를 실감케 하는 연주!
스위스 장크트갈렌의 '바흐-재단'은 바흐가 남긴 성악 작품 전곡 녹음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6년 첫 번째 녹음 이후 11년째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기대작, 'B단조 미사'를 선보였다. 줄리아 도일을 비롯한 성악진과 악단의 연주는 교회음악과 창작 의지 사이에 놓여있었던 바흐의 삶과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바흐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작품의 전모를 명쾌하고도 강력하게 어필한다. 감상 할수록 "모든 시대와 종족을 뛰어넘은 작품"이라는 작품의 수식어를 실감케 하는 연주이다. 강력 추천한다.

B535 [2CDs]
바흐: 클라비어 연습곡 3집
요하네스 랑(오르간), 장크트갈렌 바흐-재단 4중창단(합창), 루돌프 루츠(지휘)

작품의 매력을 손에 잡힐 듯 드러내는 음향, 합창과 원곡의 교차
총 4부로 구성된 바흐의 '클라비어 위붕(클라이버 연습곡)' 3부('독일 오르간 미사')에는 바흐 당시 오르간의 처음과 끝이 집약되어 있다. 스위스 장크트갈렌 바흐-재단에서 출시한 본 음반은 익히 유명한 다른 3부작('6개의 파르티타', '이탈리아 협주곡 & 프랑스 모음곡',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작품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과 작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주의 무결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다. 합창곡과 코랄 전주곡이 교차하는 배치와 깔끔하고 선명한 음향은 작품의 매력을 손에 잡힐 듯 드러내고 있다.

B540
바흐: 칸타타 19집(bwv. 48 & 90 & 131)
장크트갈렌 바흐-재단 합창단 & 오케스트라(합창 & 연주), 루돌프 루츠(지휘)

텍스트 본래의 의미를 오롯하게 드러내는 절제된 감성과 온기어린 음향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5년간 바흐가 남긴 전체 성악작품을 목표로 야심 차게 진행되고 있는 스위스 장크트갈렌 바흐-재단의 바흐 '칸타타 19집'에는 '나는 불행한 자, 누가 나를 구원하리오(bwv.48)', '무서운 종말이 너에게 다가 왔도다(bwv.90)', '주여,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bwv.131)'가 수록되었다. 정제된 질감, 절제된 감성 위에서 숨 쉬는 적당한 온기와 음향은 심연의 고통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텍스트 본래의 의미를 오롯하게 드러내고 있다. 음반 전체 시리즈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La mà de guido www.lamadeguido.com

LMG2146
기타를 위한 오늘날 스페인의 음악
데틀레프 보르크(기타)

현대인의 감수성을 담아낸 한 대의 기타를 위한 오늘날의 낭만적 음악
독일의 기타리스트인 데틀레프 보르크는 '최고 고전음악가상'을 수상하고, '이달의 클래식 음반'에 선정되었던 실력파 연주자이다.
그는 스페인 기타 음악에 정통한 연주자로서, 이 음반에 20세기 스페인 작곡가들의 기타음악을 수록했다. 델 레이의 음악은 귓가에 감기는 전형적인 스페인의 낭만음악이며, 안드레스 바티스타와 아구스틴 카스티야-아빌라의 음악에는 우수가 깃든 낭만적 열정이 있다.
하우메 토렌트의 '벤자민 브리튼 예찬'은 남다른 현대적 감각에 오늘날의 감수성을 담아냈으며, 호르헤 게라의 '케뎀'은 현대적인 음색에 취하게 한다.

Loft www.gothic-catalog.com

LRCD 1022
세상 밖으로: 금관과 오르간을 위한 영웅적 음악
보스턴 브라스, 멜빈 버틀러(성마가 성당 오르간)

오르간의 위엄과 금관의 매력을 뽐내는 화려하고 거대한 음악
보스턴 브라스와 성마가 성당의 거대한 플렌트롭 오르간이 거대한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세상 밖으로'라는 독특한 제목과 '영웅적 음악'이라는 부제는 이 앨범의 프로그램의 특징을 대변한다. 브루스 밀러의 '명왕성: 마지막 행성'은 우주공간으로 뻗어가는 환영이 펼쳐지는 듯한 환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뒤프레의 '영웅적인 시', 가브리엘리의 '칸초나', 지구의 '대합창' 또한 이에 필적한다. 이외에 바흐의 '나의 영혼을 기쁘다', 헨델의 '크세르크세스' 중 아리아, R. 슈트라우스의 '장엄 입장' 등 금관의 매력을 뽐내는 음악들로 가득하다.

LPO www.lpo.org.uk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0094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랄로: 스페인 교향곡
아우구스틴 하델리히(바이올린)/바실리 페트렌코(지휘), 오메르 메이어 웰버(지휘)&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젊은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에너지 가득한 연주
최근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와 런던 필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런던 페스티벌 홀에서 남긴 실황연주이다. 하델리히는 그래미 수상 이후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차이코프스키와 랄로의 협주곡에서 완전히 각인될만한 연주를 들려주고있다. 바실리 페트렌코의 공격적인 반주, 오메르 메이어 웰버의 리드미컬한 진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리하고 분석적인 톤으로 작품의 뉘앙스를 섬세하고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현재 음악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젊은 세 음악가가 만들어내는 찬란한 순간이다.

LPO0095 [2CDS for 1.5]
드보르자크: 오텔로 서곡, 교향곡 6, 7번
야닉 네제-세갱(지휘)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거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세갱의 놀라운 모습
차기 지휘계를 이끌어 갈 젊은 지휘자로 첫 손가락에 손꼽히는 야닉 네제-세갱의 신보다. 오텔로 서곡과 6번의 경우 2016년, 7번의 경우 2009년에 녹음되었다. 네제-세갱은 지휘를 시작했던 20대부터 매우 극적이고 큰 스케일을 펼쳐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두 음원 자체가 7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세갱의 방식은 모두 유효하다. 장대한 피날레 이후 터져나오는 객석의 반응을 보더라도 그날의 실황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MD&G www.mdg.de

DG

307-19762
모차르트: 초기 현악 4중주 3 · 4 · 8 · 13번
콘라드 무크 · 틸만 뷔닝(바이올린), 이보 바우어(비올라), 마티아스 무스도르프(첼로)

예술적 음악을 꿈꾸었던 모차르트의 초기 현악4중주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은 엠데게 레이블에서 낭만주의 가곡, 시벨리우스, 슈베르트, 베토벤 등의 여러 앨범을 발매한 간판스타이다.
이 앨범은 모차르트의 초기 현악 4중주 1 · 2 · 6 · 9 · 10번(MDG 307 1975-2)에 이어지는 것으로 초기 작품 3 · 4 · 8 · 13번이 수록됐다.
이 곡들은 1772년부터 1773년까지 작곡된 것으로 유희나 여흥의 음악에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순수음악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을 때다.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은 과다니니, 과르넬리 등으로 무장하여 작곡가의 의지와 예술성을 꼼꼼히 그려낸다.
이들이 녹음공간으로 즐겨 찾는 마리엔뮌스터 홀의 음향은 현에 윤기를 가하는 또 다른 악기처럼 작용한다.

602-19942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외
헤르만 막스(지휘), 소년합창단, 라인교회합창단

바로크와 전기 고전을 잇던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의 명합창곡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1732~1795)는 음악가가 된 바흐의 네 명의 자녀 중 세 번째 아들이다. 그는 바로크의 후기 양식에서 전기 고전주의 양식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는다. 수록곡은 무반주 합창곡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현악과 함께 하는 '미제레레(불쌍히 여기소서)'로, 1988년과 1994년 녹음 자료를 엠데게 레이블이 발매한 것이다. 4인의 솔리스트와 합창단의 호흡이 빚는 음향은 엠데게의 기술력으로 맑게 빛난다. 현악과의 조화도 고즈넉이 잘 살리고 있다. 18세기 합창의 묘미를 두루 느낄 수 있는 이 음반에는 독일어 가사지가 수록되어 있다.

902-19856 [2SACD]
바흐: 요한수난곡
라이너 요하네스 홈부르크(지휘), 헨델 컴퍼니(기악), 슈투트가르트 성가 합창단, 베로니카 윈터(소프라노), 프란츠 비첨(알토), 안드레아스 포스트(테너), 트리스토프 슈바이처(바리톤 · 예수), 토마스 레이스크(바리톤 · 아리아스) 등

수수하면서도 깊은 음색으로 채색한 '요한 수난곡'
'요한 수난곡'은 '요한복음' 18 · 19장을 바탕으로 1부는 예수의 결박, 제자의 배반, 2부는 심판받는 예수와 죽음을 그리고 있다. 두 장의 CD로 된 앨범으로, 독일의 지휘자 · 오르가니스트 홈부르크는 극적 흐름보다 음악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이 곡을 이끌어나간다. 표현의 과장이 없고, 온화하면서도 섬세하다. 악기와 비브라토의 연출은 원전 형식을 따른다. 전체를 아우르는 지휘 속에서도 여덟 솔리스트의 캐릭터와 목소리를 이끌어낸다. 녹음도 의도적인 세련미를 피한 수수한 인상의 느낌을 준다.

902-19896 [SACD]
그단스크 지역의 바로크 음악 모음곡
안제이 자드코(지휘), 골드베르크 바로크 앙상블, 골드베르크 성악 앙상블, 마리 스몰카(소프라노), 프란체스카 고트발트(알토), 헤르만 오스월트(테너), 마르쿠스 플라이크(베이스)

바로크 음악의 숨은 명소 단치히의 칸타타를 만나다
그단스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폴란드령이 된 도시지만, 독일명 단치히(Danzig)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르가니스트 · 지휘자 안제이 자드코가 2008년에 창단한 골드베르크 바로크 앙상블은 폴란드와 발틱 3국의 바로크의 음악 발굴 및 연주에 정통하다. 그단스크가 독일령이었던 17~18세기에 그단스크에서 카펠마이스터 및 작곡 활동을 했거나,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정착하여 사망했던 요한 메테르, 요한 제레미아스 그레인, 요한 발타자르 크리스티안 프레이슐리히, 요한 다니엘 플클리츠의 바로크 칸타타 곡을 모은 음반이다. 현재 항만도시로 알려진 곳에 숨겨져 있던 음악사의 보석과 만나는 기분이다.

903-19966 [SACD]
나프라브니크: 피아노 3중주 Op.24, Op.62 외
바르텍 니지오(바이올린), 데니스 세베린(첼로), 타티아나 코르슨스카야(피아노)

'둠키'에 버금가는 체코의 피아노 3중주의 대발견
체코의 작곡가 에두아르드 나프라브니크(1839~1916)의 피아노 트리오 Op.24와 Op.62, 피아노 독주곡을 피아노 트리오로 편곡한 '멜랑콜리'가 수록되어 있다. 독일여성작곡가 루이스 아돌파 르 비(1850~1927)의 3중주곡을 엠데게 레이블에서 녹음 · 발매해 주목을 끌었던 트리오 스피로스는 잊혀진 작곡가의 작품을 발굴하여 그들의 연주로 '명작'을 빚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나프라브니크의 곡은 드보르자크의 '둠키'만이 체코음악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듯, 동유럽 특유의 무게와 향수어린 선율로 가득하다. 엠데게의 음향은 세 개의 악기에 우열 없이 입체감을 부여하여 눈앞에서 연주가 진행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903–19886 [SACD]
베어만: 클라리넷 5중주 Op.19 · 22 · 23
리타 카린 메이어(클라리넷), 벨레누스 현악 4중주단

베버가 반했던 베어만의 클라리넷 5중주
하인리히 베어만(1784–1847)의 클라리넷 5중주 Op.19 · 22 · 23이 수록되었다. 베어만은 보헤미아 출신으로, 뮌헨 궁정 오케스트라의 뛰어난 클라리네티스트로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그를 위해 만들어졌다. 스위스 태생의 리타 카린 메이어는 파비오 루이지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취리히 오페라의 필하모니아 취리히 수석으로 재직 중이다. 밝고 깨끗한 울림으로 가지런히 정돈된 벨레누스 현악 4중주단의 호흡이 전체적으로 시원스럽고 깔끔하게 메이어의 소리를 받쳐준다.

903–19986 [SACD]
그리그: 현악 4중주 1 · 2번 외
멕코어 현악 4중주단

그리그의 숨은 명작 현악 4중주
그리그는 현악 4중주를 두 개 작곡했다. 2번(EG117)은 2악장까지만 작곡한 채 미완성이며, 1번과 멜로디가 흡사해 중간에 작곡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곤 한다. 1번과 2번은 각 악장이 강렬하고 재밌지만 작품성에 비해 세상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푸가(EG114)까지 포함한 3곡을 폴란드의 메코어 현악 4중주단(2007년 창단)이 연주한다. 그리그 식의 파격적인 선율의 기본적인 맥박을 지키면서도 선율이 지니고 있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과감 없이 표현한다.

904–19876 [SACD]
스카를라티: 하프시코드 19곡
에리 만타니(피아노)

깔끔한 음향감으로 접하는 심지 있는 터치감
스카를라티(1685~1757)는 마리아 바르바라 왕녀의 하프시코드의 교사였다. 1729년 그녀가 스페인 왕자와 결혼했을 때에도 그녀를 따라 마드리드로 이주 · 정착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약 555곡이나 되는 하프시코드곡은 그녀를 위해 작곡되었는데, 오늘날 고전파 소나타의 원형으로 취급되곤 한다. 이중 19곡을 선곡한 에리 만타니는 스타인웨이 1901년 산 '만프레트 뷔르키'로 연주한다. 정갈한 해석, 유연하면서도 심지가 잡혀드는 듯 질감이 느껴지는 터치감이 엠데게 레이블의 녹음에 잘 담겼다.

905–19546 [SACD]
요한 메르츠: 기타 곡 외 슈베르트 · 사티 기타 편곡곡 모음
프란츠 분가르텐(기타)

열 줄의 기타로 만나는 잊혀졌던 명작과 슈베르트 · 사티의 가곡들
보통의 클래식 기타는 여섯 줄로 되어 있지만, 프란크 분가르텐의 기타는 열 줄이다. 1861년 슈어저가 고안한 것이다. 이 앨범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작곡가였던 요한 카스파 메르츠(1806~1856)의 작품을 수록한 것이지만, 슈베르트 6곡의 가곡들에 자연스레 눈길이 간다. 가곡을 노래하는 현의 울림은 부드럽고도 깊다. 두 대의 피아노 혹은 오케스트라로 주로 연주되는 에릭 사티의 '배 모양의 3개의 소곡'에서 10줄 기타의 진가가 나온다. 줄이 많은 만큼 여섯 줄 기타보다 음역도 넓고, 아르페지오 주법도 더 화려한 이 악기는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해설지는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

937–19956 [SACD]
베토벤: 교향곡 4번 · 7번
슈테판 블루니어(지휘),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음향으로 승부 건 베토벤 교향곡 4번 · 7번
베토벤의 고향 본에 위치한 베토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슈테판 블루니어는 엠데게 레이블에서 여러 앨범을 발매한 스타 지휘자다. 1806년에 창단된 오케스트라와 2008년에 취임한 그는 18세기의 프란츠 단치부터 20세기의 말러를 녹음해왔다. 베토벤 교향곡 전곡 녹음 진행 중인 이들이 녹음한 교향곡 4번과 7번이 수록된 앨범이다. 녹음 장소인 본 베토벤홀의 음향과 엠데게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이 청량한 울림과 화려함을 한층 더한다. 속도보다는 음색의 무게감과 밝기에 중점을 둔 연주가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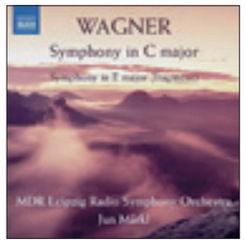
Naxos www.naxos.com

8573476 [추천음반]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1 & 2번,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C#장조'(op.70)
로맹 드샤르메(피아노),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르크 수스트로(지휘)

걸작의 면모를 드러내는 예리하고 날렵한 터치, 정갈한 음향
생상스가 40여년에 걸쳐 작곡한 5개의 피아노 협주곡은 오늘날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의 전형으로 남아있다.
저마다 뚜렷한 색채와 매력을 내뿜는 이들 작품 중 리스트의 찬사를 받은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연주자들의 레파토리에 올라있다. 드샤르메의 날렵하고 예리한 터치는 작곡가의 모든 것이 담긴 걸작의 면모와 앞으로의 행보를 예시하는 처녀작(피아노 협주곡 1번)의 영감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2017년 3월 낙소스 신보 중 가장 추천할 만한 음반이다. 감상을 권한다.

8572320–21 [2CDs]
바인베르크: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그레고리 칼리노프스키(바이올린), 타티아나 곤차로바(피아노)

미묘한 음악 언어의 변화상이 담겨 있는 작품
바인베르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이 수록된 음반이다. 바인베르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숫자나 규모 등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교향곡이나 현악사중주만큼 크게 주목받는 작품은 아니지만, 특유의 독특하고도 미묘한 음악 언어의 변화상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대 민요 선율이 쓰인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은 동일 장르의 대표작으로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트라우마, 쇼스타코비치의 그림자와 닿아 있다.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드러나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스크래치 북'을 대하는 느낌을 준다.



8573413
바그너: 교향곡 E장조(일부) & 교향곡 C장조
라이프치히 MDR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준 메르클(지휘)

유장한 서사성의 연원을 짐작할 수 있는 두 편의 교향곡
오늘날 바그너의 이름은 '유장한 서사성'의 아이콘으로 자리하고 있다. 젊은 시절 바그너는 두 편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1834년 작곡된 '교향곡 E장조'는 1악장 전체와 2악장 일부만 작곡되었는데, 바그너 사후 펠릭스 모틀에 의해 보필이 이루어졌다. '베토벤 교향곡 8번'을 연상시키는 2악장의 서정은 미완의 여운과 더불어 짙은 아쉬움을 남긴다. 1832년 작곡된 '교향곡 C장조'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두 작품에 나타난 위풍당당함과 재기발랄함은 '유장한 서사성'의 출발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8559823
제니퍼 히그던: 비올라 협주곡 & 오보에 협주곡 & 장엄한 모든 것
내쉬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지안카를로 게레로(지휘)

미대륙의 장엄한 풍광 & 악기의 미세한 질감을 멋지게 포착한 작품들
2010년 퓰리처상 수상, 타악기 연주자 콜린 커리를 위한 '타악기협주곡', 2016년 토마스 햄슨의 내한 공연에서 선보인 '남북전쟁' 등의 작품으로 익숙한 제니퍼 히그던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 중 한사람이다. 미대륙의 장엄한 풍광을 느낄 수 있는 2011년 작품 '장엄한 모든 것'에는 코플랜드의 색채가 스며있다. 악기의 미세한 질감을 멋지게 포착하고 있는 '비올라 협주곡'과 '오보에 협주곡'은 협주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히그던의 특출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장엄한 모든 것'(5–8번 트랙) 제외, 세계 최초녹음]**

8573501

푸치니: 가곡(전집)

크라시미라 스토야노바(피아노), 마리아 프린츠(소프라노)

오페라 작품을 축약해 놓은 듯한 푸치니의 가곡들

푸치니의 가곡들은 그의 고향인 루카 시절(1875–80)부터 시작해 밀라노 음악원 시절(1880–1884), 처녀작 《빌리》로 성공을 거둔 후 작곡된 살롱 음악(1888–1890), 원숙기 토레 델 라고 시절의 작품(1902–1919)에 이르기 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작곡되었다. 삶과 죽음, 사랑 등 오페라 작품을 축약해 놓은 듯한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 중에서도 청춘시절 작곡된 종교적인 색채의 가곡이 눈에 띠는데, 1882년 작곡된 '살베 레지나(8번 트랙)'가 특히 인상 깊다. 가곡을 통해 들여다보는 푸치니의 음악 여정은 새롭고 흥미롭다.

8573543

차이콥스키: 피아노 작품집

마미 시키모리(피아노)

영민하고 감수성 짙은 서정, 차이콥스키 인생 편린이 담긴 피아노 작품들

일생의 편린들이 담겨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음악은 그의 음악적 동반자라 해도 좋을 듯싶다. 《백조의 호수》 한 대목을 연상시키는 '슬픈 노래(2번 트랙)'과 '러시안 무곡(10번 트랙)'이 담긴 《12개의 소품》은 아마추어 또는 살롱에서의 연주를 목적으로 작곡되었지만, 차이콥스키의 영민하고 감수성 짙은 특유의 서정이 담겨 있다. '무언가(15번 트랙)'으로 잘 알려진 《합살루의 추억》을 비롯한 작품들은 낭만의 서정과 함께 매력적인 기교를 느낄 수 있다. 프랑스 인상파 음악을 연상시키는 마미 시키모리의 색채감 있는 터치는 작품의 매력을 더한다.

8573596

앙리 뒤티외: 교향곡 2번(이중, 二重) & '순간의 신비' & 음색, 공간, 움직임(혹은 '별이 빛나는 밤')

프랑세즈 리발랑(침벌롬), 릴 국립 오케스트라(연주), 다렐 앙(지휘)

기발하고 흥미로운 인상, 뒤티에만의 독창적인 색채

뒤티에 작품의 특징을 축약해 놓은 음반이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설립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쿠세비츠키 재단으로 부터 위촉받은 뒤티에의 '교향곡 2번'은 그 만의 '점진적인 기법'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고흐의 작품으로 부터 영감을 받은 '별이 빛나는 밤'은 예술작품으로부터의 영감을 주제로 하고 있는 뒤티에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신비의 순간'은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의 아찔한 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선사한다. 음악적 영감이 피어나는 순간의 현란함은 기발하고도 흥미로우며, 강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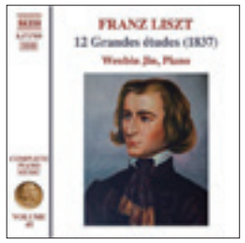
8573645

라슬로 라이타: 관현악 작품 3집

페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니콜라 파스케(지휘)

라이타 교향곡의 중심을 이루는 두 작품

라이타 관현악 작품 3집에 수록된 2개의 교향곡은 라이타 교향곡의 중심이자, 음악 인생 중반부에 위치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교향곡 4번(봄)'은 '교향곡 2번'(2집 수록)에 담긴 1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기억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주곡(op.44)', '하프5중주 2번'과 함께 T.S. 앨리엇의 시극 《대성당의 살인》을 계기로 작곡된 '교향곡 3번'은 원작에 담긴 작가의 말과 생각을 자신의 음악적 언어를 통해 증폭시키고 있다. '모음곡 2번'의 재치 있는 선율 속에는 파시스트 독재자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다.



8573709

리스트: 피아노 작품 45집(12개의 대연습곡)

원빈 진(金文彬, 피아노)

재기발랄함 이면의 순수함을 표현하는 온기 어린 터치

낙소스에서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집 시리즈 45번째 음반에는 '12개의 대연습곡'이 수록되었다. 젊은 시절 리스트의 재기발랄함과 자신감이 담겨 있는 '12개의 대연습곡'은 '24개의 대연습곡'과 '초절기교연습곡'에 비해 쉽게 접하기 어렵지만, 이들 작품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2012년 상하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피아니스트 원빈 김의 온기어린 터치는 젊은 시절 리스트의 자신만만한 야심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순수함과도 닿아 있는 듯하다.

8573734

샤를 아우구스테 드 베리오: 바이올린협주곡 4 · 6 · 7번, 에르 바리에 4번('몽타냐르'), '발레 정경'

아야나 츠지(바이올린), 파두리체 체코 첼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미하엘 할라스(지휘)

매혹적인 바이올린의 기교, 감성 충만한 선율

샤를 아우구스테 드 베리오는 모두 10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남겼다. 낙소스에서는 베리오의 바이올린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본 음반은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조명하는 시리즈 세 번째 음반이다. 더블 스톱과 쥬테 등 혁신적이고도 매혹적인 기교로 수놓는 감성 충만한 선율은 프랑코–벨기에 악파의 창시자이자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연주자 베리오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음반에 담긴 작품의 장르에 따라 적절히 힘을 배분하는 악단의 능숙한 연주는 베리오 작품의 매력을 한껏 돋우고 있다.

8573627

레오폴드 코젤루흐: 교향곡 1집

파두리체 체코 첼버 오케스트라(연주), 마렉 슈틸레츠(지휘)

적절한 긴박감, 깔끔하고 선명한 연주로 빚어낸 고전의 품격

보헤미아 출신의 작곡가 레오폴드 코젤루흐는 생전에 주로 빈에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다. 400여개가 넘는 그의 작품들은 피아노협주곡, 실내악, 교향곡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는데, 30여개에 이르는 그의 교향곡을 조명하는 시리즈 첫 번째 음반에는 신포니아 네 작품이 수록되었다.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이들 작품들은 젊은 시절의 하이든과 매우 닮아 있는데, 때로는 슈베르트 초기교향곡의 한 대목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적절한 긴박감과 깔끔하고 선명한 연주로 빚어낸 고전의 품격이 무척 인상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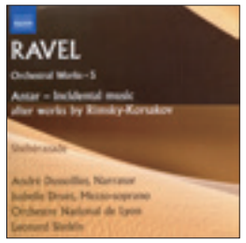
8559825

루 해리슨: 바이올린 협주곡 & 그랑 듀오 & 이중 음악

팀 페인(바이올린), 마이클 보리스킨(피아노), 포스트–클래시컬 앙상블(연주), 앙헬 길–오르도네스(지휘)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루 헤리슨 음악의 스펙스럼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음악'의 개척자, 루 해리슨의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구체로 이루어진 설치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단순한 가운데 미묘하게 변하는 인상들이 이채롭다. 인도네시아 민속음악 '가믈란'의 요소가 두드러지는 '그랑 듀오'는 루 해리슨 음악의 본질과 닿아있는 작품이다. 존 케이지와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이중음악'은 '우연'에서 '필연'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이 담겨 있다. 연주자들의 면모에 걸맞게 루 해리슨 음악의 본질을 명쾌하게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8573448

라벨: 관현악 작품 5집(안타르 & 셰하라자데)

이자벨 드루에(메조 소프라노), 앙드레 뒤솔리에(나레이터),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연주), 레너드 슬래트킨(지휘)

라벨의 색채로 다시 탄생한 코르사코프의 교향시 두 작품

러시아 혹은 동방 문화의 요소, 그 중에서도 림스키 코르사코프로 부터 받은 영향은 라벨의 작품 세계에 중요한 영감으로 자리하고 있다. 라벨의 색채로 재해석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두 작품 중 '셰헤라자데'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데 비해 '안타르'는 초연 후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 잊혀졌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안타르'와 오페라 '믈라바'로부터 발췌한 부분에 자신의 해석을 더한 라벨의 '안타르'는 프랑스의 극작가 아맹 말루프의 시를 텍스트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매력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8573454

브람스: 현악사중주 3번 & 클라리넷 5중주

제임스 캠벨(클라리넷),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연주)

매혹적인 바이올린의 기교, 감성 충만한 선율

브람스의 '현악사중주 1 & 2번'이 수록된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의 음반(8.573433)은 엄격한 분위기 속에 흐르는 자유로움과 우수를 담담하고도 역동적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1집에 이어 이들의 발걸음은 브람스 만년의 걸작인 '현악사중주 3번'과 '클라리넷 사중주'에 이르렀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부각된 '현악사중주 3번'에서는 1집의 반향을 다시 한 번 음미할 수 있다. 특히, '클라리넷 사중주'는 색소폰 마냥 뿌연 우수를 내뿜고 있는 클라리넷의 음색이 시가 연기에 둘러싸인 브람스의 모습과 겹쳐 있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8573503

모레노 토로바: 기타 협주곡 작품 2집

페페 로메로 & 비센티 코베스(기타), 에스트레마두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누엘 코베스(지휘)

작곡가 토로바의 정수가 담긴 기타음악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곡가 토로바는 '사르수엘라'와 관련되어 회자되곤 한다. '사르수엘라'와 더불어 작곡가 토로바의 위상을 보여주는 작품은 기타음악에 있다. 토로바의 기타 협주곡을 조명하는 시리즈 두 번째 음반에는 '세고비아에 대한 헌사', '토나다 콘테르탄테', '카스티야 협주곡'이 수록되었다. 연주자와 악단은 각각의 작품들에 담긴 스페인의 정열과 리듬, 풍취와 활기, 카스티야 지방의 전통과 서정을 인상적으로 풀어냈다. 초 여름밤의 상큼한 저녁 공기를 연상시키는 연주는 시종일관 놓칠 수 없는 매력을 내뿜고 있다.

8573561

타네예프 & 보로딘: 피아노 삼중주

델타 피아노 삼중주단(연주)

절묘한 대위법과 서정 & 밝은 색채감

낙소스 레이블에서 선보인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전집'(카르페 디엠 사중주단 연주)은 작품의 선율미와 구조를 명쾌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2013년 결성된 델타 삼중주단은 이들의 데뷔작품으로 타네예프의 '피아노 삼중주'를 선택했다. 타네예프 특유의 절묘한 대위법과 서정을 매력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들의 연주는 앞서 언급한 '현악사중주 전집' 만큼이나 주목할 만하다. 같이 수록된 보로딘의 '피아노 삼중주' 역시 타네예프 작품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꽃피고 물 흐르는 봄날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밝은 색채감은 포근하기만 하다.

8573601

쇼스타코비치: 실내 교향곡(Op.73a) & 현을 위한 교향곡(Op.118a)

키에프 비르투오시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지휘)

원곡보다 강렬한 고전적인 색채와 그늘의 무게감, 유머러스한 일갈

야블론스키의 지휘로 녹음된 쇼스타코비치 '실내교향곡(현악사중주 1 · 4 · 8번 수록, 8.573466)'은 유장한 흐름 속에 작곡가 내면의 인상이 꿈틀거리는 듯한 반향으로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시리즈 두 번째 음반에는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3 & 10번'의 바르샤이 편곡 버전이 수록되었다. 원곡에 비해 훨씬 강렬하게 다가오는 고전적인 색채, 그늘의 무게감, 때때로 등장하는 유머러스한 일갈은 오케스트라 버전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1집과 더불어 적극 추천하고 싶은 음반이다.

8573707

슈베르트: 피아노 변주곡 작품집

예프게니 욘토프(피아노)

신선하고 탁월한 단편들 & 지음과의 순간들이 담긴 작품들

안젤름 휘텐브렌너, 살리에리, 디아벨리. 세 사람과 관련된 슈베르트의 변주곡들은 지음(知音)을 위한 슈베르트의 헌사로서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널리 알려진 변주곡 작품들 사이에 위치한 '단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만의 탁월한 악상을 한껏 보여준다. 작품들 중에서도 1962년 발견된 '그라츠 환상곡'은 '미완성 교향곡'을 세상에 전한 휘텐브렌너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각별한 작품이다. 이스라엘 출신의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욘토프의 정갈한 터치는 순수하고 영롱한 슈베르트 내면을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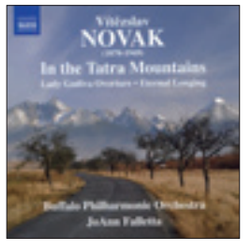
8573611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 건반 소나타 18집

세르히오 몬데리오(피아노)

스카를라티 후기 건반 소나타를 대하는 열정 & 놀라운 결과물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소나타 18집'에는 스카를라티 인생 후반기(1754~1757)에 작곡된 17개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2003년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스트 세르히오 몬테이로는 '리스트 피아노작품 43집(8.573485)'에서 보여준 영민한 터치와 절제된 음향으로 다시 한 번 스카를라티 건반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고전과 낭만에 걸쳐있는 그의 음반 이력으로 볼 때 본 음반은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다. 열정이 담긴 도전의 결과는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훌륭하다. 감상을 권한다.



8573683

비테츠슬라프 노바크: 교향시 '타트라산에서' & '영원한 갈망', '고다이바 부인' 서곡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조앤 팔레타(지휘)

'알프스교향곡'의 보헤미아 버전

드보르작의 뛰어난 제자 중 한 사람인 체코의 작곡가 비테츠슬라프 노바크는 보헤미아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풍부한 서정과 낭만적인 색채를 갖춘 작품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교향시 '타트라 산에서'는 노바크 작품의 이 같은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특히, 드보르작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로 부터 받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로 유명한 한스 안데르센의 시를 기초로 작곡한 '영원한 갈망', 고다이바 백작부인의 일화를 기초로로 작곡된 '고다이바 부인' 서곡은 서사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수작이다.

8573423

힌데미트: 마리아의 생애(1948년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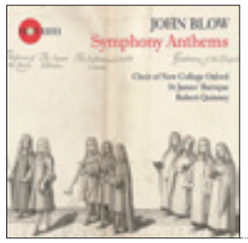
라헬 하르니슈(소프라노), 얀 필리프 슐츠(피아노)

실용주의에 대한 힌데미트의 관심, 연주자들의 균형감이 돋보이는 작품

릴케의 시를 텍스트로 작곡된 힌데미트의 연가곡 '마리아의 생애'(1923)는 그의 '표현주의 시대' 마지막 자락에 위치하는 작품인데, 힌데미트는 '신고전주의'를 거친 이후 이 작품을 개정했다.(1948년) 개정판 '마리아의 생애'는 실용주의에 대한 힌데미트의 관심이 반영된 만큼 원곡의 실험적 요소 대신 전통과 연주의 적확성, 텍스트의 정확한 표현을 중시하고 있다. 연주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줄어드는 대신 연주자들 간의 균형이 연주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작품의 본질이 잘 드러난 음반이다.

Novum

www.newcollegechoi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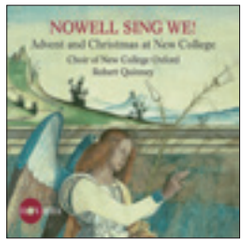
NCR 1389

존 블로우: 여섯 곡의 심포니 앤섬

뉴 컬리지 옥스퍼드 합창단, 세인트 제임스 바로크, 로버트 퀴니(지휘)

65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합창단이 노래하는 성경 말씀

앤섬은 성공회의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으로, 길이가 길지 않은 다성음악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사는 성경 구절을 사용하되 반드시 영어로 쓰였다. 앤섬은 16세기 하반기와 17세기에 크게 발전했는데, 17세기 말에 활약한 존 블로우는 그 발전에 기여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이었다. '심포니 앤섬'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음반은 모두 관현악 반주를 가지고 있으며, 독창과 중창, 그리고 합창을 넘나드는 버스 앤섬(verse anthem) 여섯 곡을 수록했다. 약 650년의 역사를 가진 뉴 칼리지 합창단은 인성의 근본적인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앤섬을 노래한다.



NCR 1390

성탄을 노래하자! – 뉴 컬리지의 크리스마스 음악

뉴 컬리지 옥스퍼드 합창단, 로버트 퀴니(지휘)

영국의 오랜 전통으로 빚어진 합창 예술로 듣는 성탄 음악들

옥스포드의 뉴 컬리지 합창단은 1379년에 창설된 유서 깊은 합창단으로, 16명의 소년과 14명의 성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교회에서 성가를 부르는 것이 주된 임무로, 이 음반에 수록된 크리스마스 시즌 음악 또한 포함된다. 프레토리우스의 '인 둘치 유빌로'와 게레로의 '아베 비르고 상크티시마', 빅토리아의 '오 마그눔 미스테리움' 등 르네상스 음악을 비롯하여 아이브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베넷의 '음산한 한겨울에' 등 근현대 음악도 수록하고 있으며,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참 반가운 신도여' 등 잘 알려진 곡도 포함되어 있다.

Ondine

www.ondine.net

ODE1291–2

브람스: 세레나데 1 & 2번

예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하이메 마르틴(지휘)

싱그러운 잔향, 온전한 브람스의 인상

하이메 마르틴과 스웨덴 예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브람스 시리즈 첫 번째 음반에는 브람스의 세레나데 1번과 2번이 수록되었다. 교향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작곡 당시부터 찬사를 받았던 이들 작품에 담긴 브람스 특유의 교향악적 스케일과 색채는 '교향곡 1번'으로 이어진다. 하이메 마르틴과 예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작년 내한공연에서 멋진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이들의 명쾌한 연주 속에 넘실거리는 싱그러운 잔향은 숲 속의 아침을 연상시킨다. 온전한 브람스의 인상이다. 앞으로 발매될 음반들 역시 매우 기대된다.

ODE1293–2

슈베르트 현악4중주 15번(D.887) & 하이든 현악4중주 26번(op.20 no.3, Hob.III:33)

테츨라프 현악 사중주단(연주)

한 치의 오차없는 완벽한 균형 속에서 빛나는 혁신의 미학

내한공연과 수준 높은 음반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테츨라프 현악 사중주단의 신보이다. 하이든이 그의 나이 40세에 작곡한 '현악4중주 26번'과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 4중주 작품인 '현악4중주 15번'은 전혀 다른 성격의 작품 같지만, 작품의 흐름과 색채를 통해 드러나는 혁신적인 면모는 비슷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작품의 구조와 리드미컬한 흐름을 탁월하게 구사하는 테츨라프 현악 사중주단의 한 치의 오차 없는 균형 속에 해당 장르의 완정을 향한 작곡가들의 고뇌 역시 결실을 맺는 듯하다. 감상을 적극 권한다.

ODE1292–2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 & 5번

로열 노던 신포니아(연주),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 지휘)

찰나의 파장, 생동하는 반향의 심쿵한 어울림

90년대 중반, 라르스 포그트가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CBSO와 함께 녹음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1 & 2번)'은 라르스 포그트의 진정한 매력을 세상에 알렸다. 이로부터 20여년 후 그는 애정어린 레퍼토리와의 '시절인연'과 다시 마주했다. 지휘와 피아노를 겸하며, 작품 속에 자신만의 온전한 색채를 불어넣은 본 음반은 그 자신이 굴다(F. Gulda)의 'Midlife Harvest'에 비견할 정도로 각별한 것임에 틀림없을 듯 싶다. 찰나의 아찔한 파장을 일으키는 라르스 포그트의 투명하고 명징한 터치, 이에 발맞춰 생동하는 악단의 반향은 실내악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심쿵한 어울림으로 수렴한다.

[Ondine 에서 발매된 라르스 포그트의 다른 음반들]

ODE1273–2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ODE1285–2

슈베르트: 네 개의 즉흥곡 D899, 여섯 개의 독일 무곡 D820, 악흥의 순간 D780

ODE1284–2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3번, 스케르초

ODE1204–2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V.379, 454, 526

● 공연소식 ●

라르스 포그트 & 로열 노던 신포니아
[베토벤 마라톤 콘서트]

***지휘 & 피아노:** 라르스 포그트
***연주:** 로열 노던 신포니아
***일시:** 5월 24, 25일(수, 목) 8pm
***장소:** 롯데콘서트홀

[프로그램]

5월 24일 (수)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C장조, Op. 15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B♭장조, Op. 19

Intermission

피아노 협주곡 제 4번 G장조, Op. 58
교향곡 제 7번 A장조 Op. 92

5월 25일 (목)

교향곡 제 8번 F장조, Op. 93
피아노 협주곡 제 3번 C단조, Op. 37

Intermission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E♭장조, Op. 73 'Emperor'

Proprius www.proprius.com

PRCD2078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와 기타를 위한 작품집

닐스-에릭 슈파르프(바이올린), 안드레아스 브란텔리트(첼로), 다비트 헤렌슈탐(기타)

파가니니의 실로 아름다운 소품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작품은 대중에 제법 알려진 편이지만 다른 악기들과 함께 구성된 실내악 작품들은 거의 잊혀져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에 적을 두고 있는 북유럽의 비르투오조들이 모여 파가니니의 이 희소하지만 아름다운 작품을 녹음했다.
첫 트랙 세레나타를 듣는 순간부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작품의 매력 속으로 빠져드는데 1709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Blue Baby', 1709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 'Boni-Hegar'의 그윽한 음색을 느끼는 맛이 각별하다. 24bit/96kHz의 고해상도로 녹음된 프로프리우스 레이블 특유의 살아있는 듯한 음질도 감상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RCO Live www.orchidclassics.com

RCO17001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 슈만: 피아노 오중주

프랑크 페터 침머만(바이올린), 엠마누엘 엑스(피아노), RCO 체임버 솔로이스츠, 베르나르드 하이팅크(지휘) &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RCO와 하이팅크, 2010년의 기록들

RCO와 하이팅크가 만났을 때 선보이는 특유의 응집력은 그들이 보낸 오랜 세월만큼 돋보인다. 특히 교향곡과 같이 두터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브람스의 협주곡들에서 어우러지는 이들의 밀도있는 사운드는 협주곡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프랑크 페터 침머만의 바이올린 연주는 22년 전보다 원숙하며 엑스의 피아노 역시 한층 깊어진 음색으로 RCO에 화답한다.
두 대작의 사이에 수록된 슈만의 오중주는 RCO 멤버들과 오랜 세월 실내악으로 다듬어진 엑스의 반주로 진행되는데 단원들 특유의 명인기에 단원들의 완벽한 호흡이 발휘되어 진정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연출한다.

SDG www.monteverdi.co.uk

SDG725 [2CDs]

바흐: 마태수난곡

제임스 길크라이스트(에반젤리스트), 슈테판 로게스(예수) 외, 존 엘리엇 가디너(지휘) &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몬테베르디 합창단, 트리니티 소년 합창단

가디너가 28년 만에 선보이는 대작

80~90년대 녹음된 마태수난곡 중 가장 드라마틱한 연주를 선보였던 가디너의 신보가 28년 만에 발매됐다. 녹음 장소는 이탈리아 피사의 대성당으로 이들이 90년대부터 전 유럽을 순례하며 남겼던 기록의 정점에 서있는 음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주 경향은 88년에 녹음한 충격적인 연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최근에 발견된 연구 성과도 크게 반영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가디너는 바흐의 자연스러운 어법에 보다 주목했고 그 결과 활기와 정념의 황금비를 포착해냈다. 합창단과 성악진들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생생하고 입체적이며 극적인 에너지는 더욱 확장되었다. 인위적인 편집을 자제한 탓인지 공연장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Simax www.grappa.no

PSC1335

이르겐스-옌센: 바이올린 소나타 & 할보르센: 5개의 카프리치오(op.9) & 신딩: 무반주 바이올린 모음곡(op.123)

요나스 보츠트란트(바이올린), 헬게 셰크슈스(피아노)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숨겨진 명작들

생상스와 바흐 등의 영향이 드러나는 이르겐스-옌센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신고전주의적 낭만주의' 색채를 갖고 있었던 그의 음악 스타일을 오롯이 담고 있으며, 바흐의 작품을 작곡가의 언어로 재해석한 신딩의 '무반주 바이올린 모음곡'은 이자이의 작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빼어나다. 열정과 기교로 가득한 할보르센의 '5개의 카프리치오'에 이르기까지 그리그와 더불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세 사람의 숨겨진 명작들은 해당 작곡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보츠트란트와 셰크슈스의 호흡 역시 빼어나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57
바흐와 친구들
에스텔 레바즈(피아노)

바흐를 매개로 연결된 전통과 현대
스위스의 유망 첼리스트 에스텔 레바즈는 그녀의 데뷔 음반에서 '바흐와 친구들'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음반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과 3번을 뼈대로 각 악장 사이에 현대 음악가의 작품을 배열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바흐를 비롯해 리게티, 펜데레츠키, 베리오, 루토스와프스키, 윤이상, 쿠르탁, 홀리거, 뒤사팽 등에 이르는 작곡가들의 면면도 놀랍지만, 바흐의 작품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현대 음악가들의 작품은 다시 한 번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흐의 수식어를 떠올리게 한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41
볼컴: 피아노를 위한 래그타임
스펜서 마이어(피아노)

그만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재즈 풍의 화음으로 풀어내는 추억과 향수
'래그타임'이란 '울퉁불퉁한 박자'라는 의미로, 저음 성부의 규칙적인 리듬 위에 당김음 리듬의 멜로디를 얹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장르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세기에는 재즈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래그타임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작곡가들이 있는데, 윌리엄 볼컴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의 래그타임은 옛날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물씬 풍기면서도 그만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재즈에 가까운 자유로운 화음을 사용하여 오늘날의 음악임을 보여주고 있다. 스펜서 마이어의 터치는 매우 감각적이다.

30064
쿠바의 피아노 음악
알렉산더 무투즈킨(피아노)

스페인과 재즈가 혼합된 쿠바의 이국적인 피아노 음악
카리브해의 낙원, 쿠바. 이곳은 스페인 문화권이지만 아프리카계와 혼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음악은 스페인과 재즈가 혼합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부엘타의 '라 발렌티나', 게레로의 '당신이 좋아하는 한 사람' 등은 스페인 풍의 리듬을 갖고 있으며, 누사의 '바이올린 소녀'와 알렌의 '소리의 혼란'은 재즈에 가깝다. 힘베르나트의 '무곡'은 재즈 리듬에 스페인 풍의 경쾌한 선율이 결합되어있으며, 비티에르의 '천사의 아바나'는 나른한 꿈결의 오후처럼 로맨틱하다. 발레라의 '소리 이야기'처럼 실험적인 작품도 들을 수 있다.

30065
리스트: 피아노를 위한 오페라와 가곡
알렉산더 무투즈킨(피아노)

수준 높은 기교와 원곡의 뉘앙스를 결합하여 공감을 극대화시키는 리스트의 솜씨
오디오가 없었던 19세기에는 오직 음악회에 참석 해야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라도 감상할 기회가 흔치 않았으며,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오페라나 가곡 등 유명한 선율로 다시 작곡한 규모가 작은 독주곡이 인기를 끌었는데, 리스트도 그러한 곡을 많이 작곡했다. 이 음반은 리스트가 베르디 '아이다', 구노 '파우스트',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로부터 작곡한 곡을 수록했다. 이들은 수준 높은 기교를 요구하면서도 원곡의 뉘앙스를 살림으로써 큰 공감을 극대화시킨다. 쇼팽과 슈만 부부의 가곡 편곡도 수록했다.

Stone Records

www.stonerecords.co.uk

5060192780697 [4CD for 2]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로버트 코스틴(오르간)

오르간으로 연주한 평균율 클라비어 전곡집
현재까지 수 없이 많은 녹음을 남기고 있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이지만 순수하게 오르간만으로 녹음된 전곡 연주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 영국의 오르가니스트 로버트 코스틴이 이 소수의 행렬에 동참했다. 캠브리지 트리니티 컬리지의 오르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여러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도를 통해 그 제약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다. 특히 여러 스탑을 조합하여 우주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경건함을 넘어 경외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바흐의 평균율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들어봐야할 매력적인 작업이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335

바이트: 현악사중주 1, 2번

케르테스 사중주단

고전을 이어받아 보헤미아의 땅에 낭만을 펼친 바이트의 초기 사중주곡

보헤미아의 작곡가인 벤첼 하인리히 바이트(1806–1864)는 오늘날 부당하게 잊힌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체코 민족음악의 선구자인 스메타나보다도 18년 연상으로, 상당히 세련된 음악 언어를 구사하면서 체코어로 노래를 만드는 등 민족음악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음반은 그의 현악사중주 1번과 2번을 수록했다. 20대 후반에 작곡된 이 곡들은 하이든과 베토벤으로부터 유래한 고전음악에 상당히 기대고 있으며, 멘델스존과 슈만을 연상케 하는 과감한 면모도 보이는 수작들이다. 드보르작의 초기작들을 예견하는 측면도 있다.

Tonkunstler

www.tonkuenstler.at/de

TON2003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핀란디아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사도 유타카(지휘)

오늘날 최고의 단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명연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는 빈 음악의 상징인 무지크페라인의 상주 단체로,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사도 유타카는 2015–16 시즌에 이 관현악단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이들의 음악은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 음반에 수록된 2016년 10월 실황 또한 그들의 명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폭넓은 극적 표현력과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는 음향과 고도로 정련된 깔끔한 음색은 이 관현악단이 오늘날 최고의 단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풍부한 소노리티도 감상에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준다.

TON1002

번스타인에 대한 헌정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연주), 사도 유타카(지휘)

번스타인 음악에 대한 사도 유타카의 헌사

2015–16 시즌부터 빈의 유서깊은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를 맡은 일본 출신의 지휘자 사도 유타카가 선보인 음반들은 악단의 명성을 다시금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번스타인을 보좌하기도 했던 사도 유타카는 자신이 펼치는 음악의 본질이 번스타인으로부터 보고 익힌 것에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번스타인에 대한 헌사가 담긴 본 음반의 의미 역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고도로 정제된 음향과 깔끔한 음색, '맘보'를 외치는 단원들의 목소리마저 일사불란한, 밀도 높은 연주가 압권이다.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15th Anniversary 그리고 9번째 음악이야기

열다섯 그루 나무가 나란히 서있으면 울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도, 햇살도, 마음 따뜻한 사람들도 무시로 통과시키는 착한 울타리.
혹시 마음이 서러운 날에는 녹말이 가라앉듯 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열다섯 그루 나무는 작은 정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작은 정원.
해질 무렵, 그 정원에 편안한 의자 하나 내어놓고 저물어가는 것을
고요히 바라보고 싶은 그런 정원.

'세상의 모든 음악'이 심어놓은 열다섯 그루의 나무가 길 위의 사람들이
잠시나마 기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었기를,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는 정원이 되고 휴식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원에 자주 들러 마음을 나누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MC2–169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 15th Anniversary]**

[수록곡]

01. Tiger in the Night/ Colin Blunstone 3:04
02. Imagine/ Eva Cassidy 4:36
03. L'air du Soir/ Andre Gagnon 5:47
04. The Dark Night of the Soul/ Loreena McKennitt 6:44
05. To Tréno Févgi Stis Októ (기차는 8시에 떠나네)/ Nicos 3:12
06. Yolanda/ Pablo Milanes 4:38
07. The Railway Station/ Evanthia Reboutsika 3:42
08. Bantry Girls Lament/ irish whistle. Joanie Madden, vocal. Mary Black & Frances Black 5:12
09. Tierra del Fuego/ Joel Francisco Perri 5:23
10. Ninna Nanna/ Angelo Branduardi 7:24
11. Forest Hymn/ Bill Douglas 4:15
12. Take it with Me/ Solveig Slettahjell 4:36
13. Si Dolce e il Tormento/ trumpet. Paolo Fresu, accordion. Richard Galliano, piano. Jan Lundgren 6:03
14. Tristesse (쇼팽/이별곡)/ Tino Rossi 3:08
15.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강상구 (해금. 정수년) 5:31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413 [DVD]
Accentus ACC10413 [Blu-ray]

accentus music

베토벤: 교향곡 6, 7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지휘)

노거장이 들려주는 베토벤의 새로운 노래와 위대한 정신

2015년 5월 19일(6번)과 7일(7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열린 베토벤 교향곡 콘서트를 담은 실황. 지휘는 살아있는 20세기 지휘의 역사로 평가받는 90세의 노거장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작년 2016년 말 밤베르크 심포니커와 함께 처음으로 내한하여 형언하기 힘든 음악적 감동과 예술적 깊이를 흩뿌리고 갔던 바로 그 블롬슈테트가 이 역사적인 무대의 주인공. 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카펠마이스터로 활동했던 만큼 이 악단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작년 2015년 12월 31일 동장소에서 촬영한 베토벤 교향곡 9번에 이은 두 번째 베토벤 영상물로서 Accentus 고유의 Full HD 1080p의 선명한 화질과 PCM 스테레오/돌비 디지털 5.1/DTS 5.1 오디오 옵션을 통해 게반트하우스의 음향 및 현장감, 비브라토 없는 블롬슈테트만의 따스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만끽할 수 있다.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325 [DVD]

ARTHAUS MU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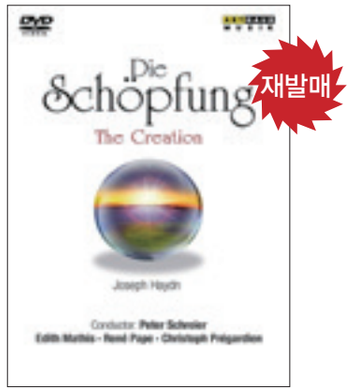
비발디: 사계

클라우디오 시모네(지휘)

1725년 암스테르담 판본에 의한 아주 특별한 연주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레퍼토리인 비발디의 〈사계〉는 수많은 연주회와 레코딩이 있었지만, 비발디가 쓴 필사본으로 연주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비발디의 〈사계〉 자필본은 분실 되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의 대가인 클라우디오 시모네는 〈사계〉의 여러 판본 중 가장 비발디의 작법에 근접하다는 판단 하에 1725년 암스테르담의 미셸 르 센(Michel Le Cene)본을 선택해서 녹음했다. 이 영상물의 연주는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 모두 베네치아의 장엄한 대저택에서 잡은영상이기에 아름다운 정원이며, 화려한 실내의 명화들이며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섬뜩할 정도의 기교를 지닌 이탈리아 베테랑 연주자들의 완벽한 사계절이다!

[구, 107025와 동일영상물]



Arthaus 109332 [DVD]

하이든: 천지창조 전곡

피터 쉬라이어 (지휘)

쉬라이어 지휘 아래 에디트 마티스와 프레가르덴이 들려주는 정제된 음악
미성의 리릭 테너 페터 쉬라이어의 종교음악 지휘자로써의 면모를 보여주는 연주

이 DVD는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있는 스위스 루체른에서 1992년 열린 루체른 페스티벌 기간중에 연주 실황으로, 정격연주에 일가견을 이룬 스코티쉬 챔버의 음향이 높은 천장을 지닌 성당 내부에서 아름답게 울려퍼진다. 명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와 90년대 이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테너 프레가르덴 등이 성악에 일가를 이룬 지휘자 쉬라이어 아래에서 잘 정제된 음악을 창출해내고 있다.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36 [DVD]
BelAir BAC436 [Blu-ray]

BelAir classiques

쇤베르크: '모세와 아론'

필리프 조르당(지휘),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오케스트라, 파리 오페라 합창단 · 어린이 합창단, 오드센 성가대, 토마스 요하네스 마이어(모세 역, 베이스바리톤), 존 그라함 홀(아론 역, 테너)

'모세와 아론', 21세기적 테크놀로지를 입다

쇤베르크의 오페라 '모세와 아론'이 바스티유 오페라에서 초연된 실황(2015년 10월) 영상물.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극장(Teatro Real)이 합작한 프로덕션으로 연출은 이탈리아이 로메오 카스텔루치(1960~)가 맡았다. 필리프 조르당의 수려한 지휘 하에 대규모 합창이 눈부신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야기의 핵심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갈등이다. 모세 역의 베이스바리톤 토마스 요하네스 마이어는 낭송조의 '슈프레히슈티메' 기법을 통해 고통에 젖어 있는 불명료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아론 역의 테너 존 그라함 홀은 군중을 매료시키는 부드럽게 빛나는 목소리로 노래한다. 카스텔루치의 연출은 우주영화를 보는듯하면서도 원작의 분위기를 유지한다. 신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 수평선을 상징한 수족관, 레

이저 인쇄기에서 분사되는 신의 말씀, 엉켜 뒹구는 나체의 남녀, 우상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하얀 소 등이 충격과 감동 사이를 줄타기 하게 한다.

[보조자료]

– 쇤베르크의 오페라 '모세와 아론'이 바스티유 오페라에서 초연된 실황 영상물이다. 2015년 10월에 공연된 '모세와 아론'은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장으로 부임한 스테판 리스너의 첫 제작 작품이며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극장(Teatro Real)이 합작한 프로덕션이다.

– 연출은 이탈리아 연출가 로메오 카스텔루치(1960~)가 맡았다. 필리프 조르당의 수려한 지휘 아래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담당했고, 파리 오페라 합창단 · 어린이 합창단, 오드센 성가대로 구성된 100여 명의 대규모 합창이 눈부신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 1954년에 초연된 오페라 '모세와 아론'은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쇤베르크가 작곡과 대본을 작성했다. 1막, 모세는 신의 계시를 받고 형 아론의 입을 빌려서 이집트의 유대 민족에게 그들이 잊고 있었던 유일신의 개념을 강력히 설파한다. 유대인들은 크게 술렁인다. 하지만 모세가 행하는 여러 기적들을 보고 그를 추앙하게 된다. 2막,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던 40일 동안 유대민족은 아론을 부추겨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광란의 제전을 펼친다. 광란이 잦아질 무렵 모세가 나타나 송아지상을 부수고 아론을 꾸짖는다. 하지만 아론 역시 자신의 논리로 모세를 반박한다. 모세는 실망하여 계명판을 부수어 버린다. 끝으로 3막은 아론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 '모세와 아론'은 모세와 아론 두 주인공 사이의 대립에 비치는 외양과 현실 사이의 몸부림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모세(베이스바리톤 토마스 요하네스 마이어)는 음의 높낮이가 분명치 않은 낭송조의 '슈프레히슈티메' 기법을 통해 고통에 젖어 있는 불명료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다. 반면 아론(테너 존 그라함 홀)은 군중을 매료시키는 부드럽게 빛나는 테너의 목소리로 표현된다.

– 이 프로덕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카스텔루치 연출이다. 그는 연출가의 이름으로 무대미술, 의상, 조명 디자인은 관장한다. 신의 목소리는 테이프에 담겨 내려오고, 수족관으로 수평선을 상징화하고, 신의 말씀은 거대한 레이저 인쇄기가 대신한다. 무대 뒷벽이 열리며 나체의 남녀가 엉켜 뒹구는 충격적 장면도 연출된다. 문명을 상징하는 장면에선 백성들이 검은 잉크를 온 몸에 뒤집어쓰는가 하면, 우상과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하얀 소를 등장시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한다. 아론은 신의 말씀을 입게 되었을 땐, 녹음테이프의 릴을 온 몸에 휘어 감기도 한다.

– 이 작품은 3막으로 구성되었지만 보통 2막까지만 공연한다. 왜냐하면 2막 말미에 등장하는 '황금송아지 앞에서의 춤'이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로, 나머지 3막을 사족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프로덕션도 2막까지만 다루고 있다.

– 공연 길이는 약 105분. 해설지는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로 되었으며,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BelAir BAC139 [DVD]
BelAir BAC439 [Blu-ray]

발란신: '발푸르기스의 밤' '라 발스' '교향곡 C장조'

조지 발라신(안무), 뉴욕시티 발레

프랑스 작곡가와 만난 뉴욕시티 발레의 발란신, 파리로 가다

2016년 7월의 파리 샤틀레 극장 실황물로, 뉴욕시티 발레에 재직했던 발란신이 구노 · 라벨 · 비제의 음악을 사용한 안무작 세 개를 담았다. 신고전주의라고도 불리는 발란신의 작품은 대부분 줄거리가 없는 추상 발레로, 움직임을 통해 '보이는 음악'을 추구했고, 이러한 그는 생전 '안무가 중의 모차르트'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발푸르기스의 밤'(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5막 중), '소나티네'(라벨 피아노 소나타), '라 발스'(라벨 '감상적이고 고상한 왈츠'와 '라 발스'), '교향곡 C장조(비제 교향곡 1번)'이 담겨 있다. 발란신 특유의 고전적 품격과 군무가 주는 대칭감을 맛볼 수 있다. 영상물은 각 작품이 오르기 전에 지휘자 다니엘 카프스와 오케스트라를 비춰 음악의 존재를 각인시킨다. 세심한 음질과 균형 잡힌 사운드 구현를 통해 발란신이 무용에 담고자 한 음악에 대한 뜻을 잘 살리고 있다.

[보조자료]

– 영상 초반에 파리와 뉴욕의 풍광이 번갈아가며 우리를 2016년 7월의 파리 샤틀레 극장으로 안내한다. 영상물에 'IN PARIS'가 붙은 이유는 프랑스 작곡가 구노, 라벨, 비제의 음악을 사용한 발란신의 안무작을 담았기 때문이다.

– 발란신은 극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화려한 의상, 무대장치 등의 장식적인 요소들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초연 당시 관객들은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무용수들의 몸과 움직임, 그리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영상물은 각 작품이 오르기 전에 지휘자 다니엘 카프스와 오케스트라를 비추며 음악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세심한 음질과 균형 잡힌 사운드 구현를 통해 발란신이 무용에 담고자 한 음악에 대한 뜻을 잘 살리고 있다. 신고전주의라고도 불리는 발란신의 작품은 대부분 줄거리가 없는 추상 발레로, 움직임을 통해 '보이는 음악'을 추구했다. 그런 그에게 음악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미국의 무대미술가 유진 버만은 이런 그를 가리켜 '안무가 중의 모차르트'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 뉴욕시티 발레의 예술감독이자 수석안무가로 활동했던 그의 대표작 3개가 수록된 이 영상물에서 곡명이 곧 작품명이다.

– 첫 번째 '발푸르기스의 밤'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5막 향연 장면에서 차용한 것이다. 레오니드 라브로프스키와 함께 '발푸르기스의 밤'을 무용사에 성공적인 작품으로 안착시킨 발란신의 역작으로, 뉴욕시티발레에 의해 1980년에 뉴욕주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 두 번째 '소나티네'는 라벨의 피아노 소나타에 만든 파드되로, 1975년 뉴욕주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이 해가 라벨의 탄생 100주년이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두 명의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직접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라이브와 함께 발란신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견고한 형식미를 드러내며 정돈된 우아함을 질서정연하게 표현한다.

– 세 번째 '라 발스'는 1951년 음악연극센터에서 초연된 것으로, 라벨의 '감상적이고 고상한 왈츠'와 '라 발스'를 사용한다. 세 명의 발레리나로 시작된 작품은 집단 왈츠로 확장되며 궁정의 연회를 연상케 하듯 화려하게 펼쳐진다. 생전에 '신낭만주의 무용가'라는 평을 들었던 발란신의 고전적 품격과 군무가 주는 대칭감을 맛볼 수 있다.

– 네 번째 '교향곡 C장조'는 1947년 초연작으로, 뉴욕 시티 발레가 1948년에 초연했다. 비제의 교향곡 1번 전악장을 사용한 이 작품은 튀튀를 착용한 여성무용수들의 군무가 향연을 이룬다. 무용수들은 고전주의의 기본원리와 형식을 받아들이면서 보다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BelAir BAC444 [Blu-ray]

파리 국립오페라극장의 글루크/피나 바우쉬: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피나 바우쉬(안무 · 댄스오페라), 토마스 헹엘브로크(지휘),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 · 합창단, 얀 브리다드(제1무용수 · 오르페우스), 마리아 리카르다 비젤링(메조소프라노 · 오르페우스), 마리안느 쥘로(수석무용수 · 에우리디케), 율리아 클레이터(소프라노 · 에우리디케), 미테키 쿠도 · 임선혜(소프라노 · 아모르)

피나 바우쉬의 마지막 작품이자 영상물로 허락한 단 하나!

2008년 2월, 파리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선보인 글룩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실황으로, 안무가 피나 바우쉬가 촬영과 영상물 제작을 허락한 단 하나의 영상물이다. 바우쉬는 글룩의 음악적 의도를 존중하며 오페라발레의 원형을 매우 효과적으로 살려내고 있다. 토마스 헹엘브로크가 이끄는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과 합창단 모두 훌륭하며, 특히 소프라노 임선혜가 아모르 역으로 출연해서 멋진 노래를 들려준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대부분 프랑스어로 부르지만, 이 공연에선 독일어로 부른다. 자막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고, 총 공연시간은 104분이다. 2000년 파리오페라발레단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무용수로 입단하여 2009년 쉬제(군무와 주역을 오가는 솔리스트)로 은퇴한 김용걸이 하계를 지키는 세 괴물 중 하나로 등장하여 존재감 있는 캐릭터를 드러낸다.

[보조자료]

– 2008년 2월, 파리 국립오페라극장에 올라 화제를 뿌렸던 글룩(1714~1787)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실황이다(이탈리아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프랑스어로 〈오르페와 유리디스〉, 독일어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라고 읽는다). '댄스–오페라(dance-opera)'를 맡은 피나 바우쉬가 촬영과 영상물 제작을 허락한 단 하나의 영상물로 더욱 소중한 영상물이다.

– 원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무용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오페라로, 글루크의 개혁 오페라 중 첫 번째 작품이며 오페라 역사상 첫 히트작이다. 이를 바탕으로한 피나 바우쉬의 작품은 2009년 6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대표작으로, 글룩의 음악적 의도를 존중하며 오페라발레의 원형을 매우 효과적으로 살려내고 있다. 피나 바우쉬는 글루크의 오페라를 따르되 그 흐름을 애도–폭력–평화–죽음의 4부로 구성했다.

– 피나 바우쉬는 성악가와 무용수를 이중으로 배치했다. 예를 들어 에우리디체 역은 파리 오페라발레단의 수석 마리안느 쥘로와 소프라노 율리아 클레이터가 함께 하는 식이다. 노래와 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눌리지 않고, 각자의 생명력을 지니면서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 토마스 헹엘브로크가 이끄는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과 합창단 모두 훌륭하며, 특히 소프라노 임선혜가 아모르 역으로 출연해서 멋진 노래를 들려준다.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대부분 프랑스어로 부르지만, 이 공연에선 독일어로 부른다. 자막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고, 총 공연시간은 104분이다.

– 노출 수위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어두운 이야기에 걸맞게 빛과 어둠을 잘 나타낸 무대와 의상 그리고 발레 무용수의 춤이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2000년 파리오페라발레단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무용수로 입단하여 2009년 쉬제(군무와 주역을 오가는 솔리스트)로 은퇴한 김용걸이 하계를 지키는 세 괴물 중 하나로 등장하여 존재감 있는 캐릭터를 드러낸다.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40008 [DVD]
C Major 740104 [Blu-ray]

2016 잘츠부르크 부활절 축제 베르디: 오텔로

빈센트 부르사(연출),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호세 쿠라(오텔로), 도로시 뢰슈만(데스데모나), 카를로스 알바레즈(이아고), 벤자민 베른하임(카시오)

잘츠부르크의 '오텔로', 베르디 파워 폭발!

2016년 3월,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중 대축제극장에 올랐던 '오텔로' 실황이다. 호세 쿠라(오델로)는 부서질 듯한 섬세함과 광폭한 열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도로시 뢰슈만(데스데모나)은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소화해낸다. 알바레즈(이아고)는 가장 악질이며 치사한 인물을 능숙하게 그려낸다. 바그너의 음악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되는 이 작품을,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는 광을 낸다. 바그너를 통해 체득한 틸레만 특유의 노련미가 베르디 비극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연출가 빈센트 부르사는 세트 · 조명디자인 · 영상을 하나로 통합해내며 입체감 있는 무대를 빚는다.

[보조자료]

– 1872년 '아이다' 발표 후, 더 이상 오페라를 작곡하지 않던 베르디는 15년 만인 1887년에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바탕으로 한 '오텔로'를 내놓는다. 작품에 담긴 열정과 단단한 구조로 인해 일흔네 살의 노 작곡가가 작곡했다고 믿기지 않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 이 영상물은 2016년 3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중 대축제극장에 올랐던 베르디 '오텔로' 실황이다. '쥐드베스트프레세'로부터 "풍부하게 채색 된 테너"라는 호평을 받은 오델로 역의 호세 쿠라는 부서질 듯한 섬세함과 광폭한 열정을 동시에 담은 음색으로, 마치 오델로를 조종하고 명령하고 있는 듯한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데스데모나 역이 도로시 뢰슈만은 "공들이지 않은 완벽함"(노이에 무직 차이퉁)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아고 역의 알바레즈도 눈길을 사로 잡는다. 사랑과 동경, 갈망의 감미로운 멜로디가 수놓은 가운데 오페라 배역 중 가장 악질이며 치사한 인물인 이아고의 캐릭터를 체화시킨 카를로스 알바레스는 "이아고로 분장한 그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아벤트차이퉁)는 평을 받으며, 호세 쿠라와 함께 이 프로덕션에 빛을 내고 있다.

– '오텔로'는 오케스트라가 '반주'의 기능에서 벗어나 오케스트라 자체가 자신만의 음악적 드라마를 연출하게끔 작곡되었다. '번호 오페라'에서 탈피한 작품으로, 이것은 바그너의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았나로 추측되고는 한다. 바그너의 음악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없이 계속 흘러가는데, '오텔로'의 음악 역시 바그너의 음악극처럼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다. 중간에 관객들이 박수를 칠 여지도 주지 않는다. 오케스트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래의 선율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바그너 해석에 있어 그의 유명한 통제력과 바그너를 통해 체득한 노련미가 베르디 비극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틸레만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호흡은 "경이로운 업적으로 이룬 완벽한 오페라 앙상블"(디 프레세지)이며 "격정의 발휘와 세밀한 뉘앙스로 만들어낸 '이탈리아의 바그너' 오페라"(아벤트차이퉁)이다. 연출가 빈센트 부르사는 세트 · 조명디자인 · 영상을 하나로 통합해내며 입체감 있는 무대를 빚는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오델로의 갈등을 2D와 3D형태로 시각화한다.

※ **함께 추천하는 영상물:** 정명훈 ·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의 베르디 '오텔로'의 베네치아 팔라초 두칼레 공연 실황 (C major 716508)

C Major 740208 [DVD]
C Major 740304 [Blu-ray]

2016 그레페넥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공연

유타카 사도(지휘),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 · 유러피안 유니온 유스 오케스트라
빈 합창단, 카밀라 닐룬드(소프라노), 엘레나 치코바(메조소프라노), 클라우스 보그트(테너), 르네 파페(베이스)

자연과 음악, 신구(新舊) 작곡가의 조화, 베토벤의 '합창'

오스트리아 그레페넥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공연 실황(2016년 8월) 영상물. '구름탑(Wolkenturm)'이라 불리는 야외무대에서 크리스티안 요스트(b.1963)의 위촉 · 초연곡인 팡파르, 페스티벌 전속악단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와 유러피안 유니온 유스 오케스트라의 합동연주로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요스트가 베토벤의 가곡 '희망의 부쳐'에 영감을 받아 새롭게 작곡한 동명작 '희망에 부쳐'(협연 테너 클라우스 플로리안 보그트), 그리고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을 수 있다. 자연의 풍광, '합창' 교향곡에 담긴 자유 · 박애 · 인간애를 위한 설득력 있는 연주, 멋진 캐스팅으로 빚은 솔리스트들이 한데 어우러진 최고의 연주와 순간을 제공한다. **(9번 합창 : 한글자막)**

[보조자료]

– 오스트리아 그라페넥 성에 마련된 현대식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 한여름 밤의 공연으로 그레페넥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공연 실황(2016년 8월) 영상물이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비롯하여 베토벤의 여러 곡들이 중심이 되는 연주회다.

–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달리면 과거 라티보르 공작의 저택이었던 그라페넥 성에 도착한다. 2007년부터 이곳에선 국제적인 수준의 그라페넥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다. 성의 정원에다 현대식 건축공법으로 만든 지붕을 씌워 '구름탑(Wolkenturm)'이라 불리는 야외무대가 이 페스티벌의 주무대. 독특한 형태의 지붕은 고풍스런 성채와 대비를 이루는 초현대적인 야외조형물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 영상이 시작되면 9명의 금관 연주자들의 팡파르가 울린다. 그라페넥 페스티벌이 독일 작곡가 크리스티안 요스트(b.1963)에게 위촉 · 초연한 곡이다. 그런 다음 유타카 사도가 상임지휘자로 재직 중인 페스티벌 전속악단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와 유러피안 유니온 유스 오케스트라의 합동연주로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크리스티안 요스트가 베토벤의 가곡 '희망의 부쳐'에 영감을 받아 새롭게 작곡한 동명작 '희망에 부쳐'(협연 테너 클라우스 플로리안 보그트), 그리고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을 수 있다. 자연의 풍광, '합창' 교향곡에 담긴 자유 · 박애 · 인간애를 위한 설득력 있는 연주, 멋진 캐스팅으로 빚은 솔리스트들이 한데 어우러진 최고의 연주와 순간을 제공한다.

– 음악 중간마다 관객석과 풀밭에 편안한 자세로 관람하는 관객들의 모습은 이 영상에 입체감을 더한다. '합창' 교향곡 울려 퍼질 때 어둠에 잠긴 야외무대의 야경과 교차 편집되는 그라페넥의 자연경관이 내년의 휴가로 오스트리아 비행기 티켓을 생각해보게 한다.

※ 이 영상물과 함께 추천해요:
2016년 두다멜 · LA필하모닉의 '별빛 아래의 탱고'(Cmajor 739704),
2016년 오스트리아 그라페넥 '한여름 밤의 갈라'(UNITEL CLASSICA 2072938)

C Major 739008 [2DVDs]
C Major 739104 [Blu-ray]

샌프란시스코 발레의 〈로미오와 줄리엣〉

헬기 토마슨(안무), 샌프란시스코 발레, 다비드 카라페찬(로미오), 마리아 코제코바(줄리엣)

충실한 고전미, 점잖은 파격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1933년에 창단한 샌프란시스코 발레가 수석안무가 겸 단장 헨리 토마슨(b.1942)의 취임 30주년을 맞아 2015년 7월에 선보였던 토마슨이 안무한 '로미오와 줄리엣'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토마슨은 셰익스피어 특유의 복잡하고도 친숙한 대사들을 책에서 건져 올려 명쾌한 안무로 해석한다. 3막(116분 분량)으로 된 이 작품은 열정적인 러브스토리를 배경으로, 황홀한 안무, 스릴 넘치는 검술장면, 그리고 프로코피에프의 강렬한 곡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고전주의적 성향의 발레마니아든, 점잖은 파격을 선호하는 이든, 이 모두를 만족시킬 역작. 보너스 트랙(12분 분량)의 영상은 마치 토마슨의 안무 노트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보조자료]

– 1972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오페라하우스의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이 2015년 7월에 선보였던 '로미오와 줄리엣'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이 발레단은 2015 시즌에 헬기 토마슨의 취임 30주년을 맞아 '지젤' '돈키호테'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대에 선보인 바 있다(헬기 토마슨은 2020년까지 계약했다).

– 샌프란시스코 발레단(SFB)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한 파트로, 단장 겸 수석안무가 헬기 토마슨(b.1942)의 지휘 하에 움직이고 있다. 미국 최초의 전문발레단으로 1933년에 창단된 이 단체는 오늘날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뉴욕 시티 발레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삼두마차의 하나로 활동 중이다.

– 총 3막(116분 분량)으로 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음악은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차용했다. 장엄한 스펙터클부터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클로즈업까지 헬기 토마슨 특유의 높은 예술적 기교로 해석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무대를 선사한다. 열정적인 러브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황홀한 안무, 스릴 넘치는 검술장면, 그리고 프로코피에프의 강렬한 곡으로 샌프란시스코 발레의 팬을 새롭게 휘어잡은 작품! 토마슨은 셰익스피어 특유의 복잡하고도 친숙한 대사들을 책에서 건져 올려 명쾌한 안무로 해석한다. 본능적이고, 신선하고, 궁극적으로 숭고하다.

– 50년이 넘는 동안 여러 차례 변신을 시도해온 샌프란시스코 발레를 관찰해온 비평가 클리브 반즈가 말한대로 "토마슨의 무대에는 늘 그렇듯 명확함과 우아함이 느껴진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특유의 향기를 가미한 멋진 절충주의"라는 평처럼 이 작품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원작이 지닌 스토리와 프로코피예프의 열정 넘치는 음악 사이에서 토마슨 특유의 세련미가 돋보인다.

– 고전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이끌어내는 그의 안무와 발레리노와 발레리나의 움직임은 이 작품이 고전주의적 성향을 좋아하는 마니아든, 점잖은 파격을 선호하는 마니아 모두를 만족시킬 것이다. 영감을 주었던 셰익스피어의 시들이 들어 있는 보너스 트랙(12분 분량)은 토마슨의 안무 노트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767 [DVD]
Dynamic 57767 [Blu-ray]

베르디: 오텔로

스튜어트 네일(오텔로), 제시카 누치오(데스데모나), 로베르토 프론탈리(이아고), 다비데 지우스티(카시오) 외/ 마르셰 레지오날레 폰다치오네 오케스트라, 빈센초 벨리니 리리코 마르키지아노 합창단, 리카르도 프리자(지휘)

마체라타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의 새로운 오텔로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은 1921년 이탈리아 마르케(Marche)지방의 중심도시인 마체라타에서 시작된 여름 오페라 페스티벌로서 현재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로 급부상했다. 여기 수록된 영상은 2016년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의 베르디 오텔로 프로덕션으로서 1974년 스페인 출생의 오페라 연출가 파코 아조린(Paco Azorín)의 압도적인 무대가 눈길을 끈다. 광활한 무대를 배경으로 스펙타클한 스케일과 대단히 치밀하면서도 연극적인 연출, 빛과 색채의 향연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로서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감수성을 총집약해놓은 듯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드라마틱 테너로 명성이 높은 스튜어트 네일(Stuart Neill)과 차세대 소프라노로 각광받고 있는 제시카 누치오(Jessica Nuccio)의 열연도 훌륭하며 리카르도 프리차의 격정적인 지휘 또한 놓칠 수 없는 감상 포인트.

[보도자료]

–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은 이탈리아 마르케(Marche)지방의 중심도시인 마체라타에서 해마다 여름에 열리는 오페라 페스티벌이다. 1921년부터 시작된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는 스페리스테리오(Sferisterio)라는 야외극장(Arena)이다. 이 야외극장은 원래 1820년경 펠로네 알 브라치알레(Pellone al bracciale) 경기장으로 만든 건물이었다. 펠로네 알 브라치알레는 요즘의 핸드볼과 럭비를 합한 것 같은 운동경기이다. 1921년 피에랄베르토 콘티 공작의 후원으로 베르디 아이다가 상연되었고 천 명이 넘는 배우와 온갖 동물까지 동원되어 7만명의 관객이 관람했지만 1927년부터는 문을 닫았다. 이후 베냐미노 질 리가 1929년에 콘서트를 여는 등 이따금씩 야외 음악회 장소로 사용되었을 뿐 정식적으로 오페라 무대가 열리지는 않았다. 1967년부터 다시 간헐적으로 공연이 진행되었지만 침체기를 겪다가 1992년 마체라타시 당국이 페스티벌의 운영권을 넘겨받았고, 켄 러셀 감독의 마담 버터플라이나 프랑코 제페렐리의 카르멘과 같은 레지테아터 스타일의 프로덕션들이 올려졌다. 이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프라노 카티아 리키아렐리(Katia Ricciarelli)가 예술감독을 맡으며 거듭나기 시작했다. 특히 스피커와 마이크가 필요 없는 완벽한 음향 시설과 운동경기장이라는 특이한 형태에 힘입어 현재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야외 오페라 무대로 성장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 연출의 거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이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공연시작을 9시로 늦추면서 관객이 오페라 감상 전에 아름다운 석양과 즐거운 식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적이다.

– 6년 전 C major 레이블을 통해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연출한 푸치니의 마담 버터플라이 2010년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 실황이 DVD로 발매되며 그 엄청난 규모와 수준 높은 예술성을 비로소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초초상 역을 맡은 라파엘라 안젤레티의 경이로운 스핀토와 더불어 피치의 스펙타클한 영화를 연상시키는 스케일 큰 무대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Dynamic 레이블을 통해 2016년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의 베르디 오텔로 프로덕션이 DVD로 발매되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1974년 스페인 출생의 오페라 연출가 파코 아조린(Paco Azorín) 무대로서, 그는 세비야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고 주목할 만한 무대 예술가. 바르셀로나 극장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뒤 산타 수잔나에서 세익스피커 페스티벌을 설립, 역동적인 무대를 만들며 연극에 대한 이해와 예술성을 높이며 세계 무대에 존재감을 알렸고 이제는 오페라 무대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의 오텔로 무대는 현대적인 구도감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의상과 포스트모던한 미장센, 그림자와 빛의 대조와 색채의 대비를 통해 정말로 리얼하면서도 감각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다. 야외 오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프로덕션으로 아조린의 무대를 꼽는 데에 이의를 갖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 오텔로 역에는 미국출신으로서 드라마틱 테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스튜어트 네일(Stuart Neill)이 맡아 전례 없는 에너지와 벨칸토적 위엄을 뽐어낸다. 한편 차세대 소프라노로 각광받고 있는 제시카 누치오(Jessica Nuccio)는 1985년 팔레르모 태생으로서 라 트라비아타와 라 보엠을 비롯단 다양한 오페라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 오텔로의 상대역으로서 대단히 흡인력 높은 음색과 적나라한 연기를 보여주며 프로덕션을 성공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 낸다. 한편 이아고 역의 로베르토 프론탈리(Roberto Frontali)는 1958년 로마 태생의 바리톤으로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바리톤으로서 많은 음반과 영상물에 등장한 스타. 그는 이아고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며 절대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화질과 음질 모두 최상급으로서 한글자막이 첨부되어 있는 만큼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다.

Dynamic 57758 [Blu-ray]

도니제티: 올리보와 파스쿠알레

오퍼 알체미카(우고 지아코마치, 루이지 간기), 페데리코 사르델리(지휘), 라스칼라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코로 도니제티 오페라 합창단, 브루노 타디아(올리보), 필리포 모라체(파스쿨레), 로라 지오다노(이사벨라), 피에트로 아다이니(카밀로)

웃자! 도니제티로 크게 웃자!

2016년 이탈리아 도니제티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극장에 오른 도니제티 '올리보와 파스쿠알레' 공연 실황이다. 1827년 세상에 나온 이 오페라부파는 일종의 징슈필(노래극)으로 도니제티의 웃음코드를 발견하게 한다. 부유한 상인 형제인 올리보의 딸이자 파스쿠알레의 조카인 이사벨라와 그녀의 연인 카밀로와의 사랑과 결혼을 방해하는 두 형제의 독특한 캐릭터가 인상적이다. 연출가 우고 지아코마치 · 루이지 간기의 컬러풀한 무대, 화려한 의상, 다소 과장된 연기, 속사포로 쏟아지는 대사들은 웃음을 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총 분량은 151분이다.

[보조자료]

– 2016년 이탈리아 도니제티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극장에 오른 도니제티 '올리보와 파스쿠알레' 공연으로 도니제티 재단(Fondazione DONIZETTI)이 제작했다. 1827년 세상에 나온 '올리보와 파스쿠알레'는 한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 오페라부파를 통해 도니제티의 웃음 코드를 느낄 수 있으며, 중간마다 성악가들이 음악 없이 연극적 대사를 선보이는 징슈필이기도 하다.

– 이 작품에는 리스본 출신의 부유한 상인 형제 올리보와 파스쿠알레가 등장한다. 올리보의 딸이자 파스쿠알레의 조카인 이사벨라의 결혼은 이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손해 보는 장사이다. 이사벨라와 그의 연인 카밀로의 사랑과 결혼을 방해하는 두 형제의 다양한 웃음 코드로 가득 채워지는데, 두 사람 역시 완전히 다른 캐릭터이기에 그 재미가 배가된다. 이 프로덕션은 성악진의 연기력도 중요하지만, 재킷에는 연출가 우고 지아코마치와 루이지 간기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연출가의 미장센을 내세운 영상물임을 알 수 있다. 컬러풀한 무대, 화려한 의상, 다소 과장된 연기, 속사포로 쏟아지는 대사들은 이 작품이 뿌리를 두고 있는 오페라부파의 웃음 요소를 최대치로 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 이사벨라의 아버지 올리보 역의 브루노 타디아는 다혈질 연기를 능숙하게 해낸다. 파스쿠알레 역의 필리포 모라체도 뛰어난 배우로 올비보의 노래와 연기에 흥을 돋운다. 이사벨라 역의 로라 지오다노는 카밀로와의 사랑과 심술궂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사랑하고 상처 입는 여인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한다. 두 장의 DVD로 구성됐으며, 총 분량은 151분. 자막은 이탈리아, 영어, 프랑스, 독일어로 되어 있으며 오디오 옵션은 PCM 2.0/돌비 디지털 5.1이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64058 [DVD]

피아노 듀오 카티아 · 마리유 라베크 자매 다큐멘터리 〈라베크 웨이〉

카티아 라베크 · 마리유 라베크(피아노),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펠리츠 카베츠(영상감독),

건반 위 4개의 손이 한 몸 되어 걸어온 자매

뉴욕타임즈로부터 '오늘, 관객 앞에 마주한 가장 훌륭한 피아노 듀오'라는 칭찬을 받은 피아니스트 카티아와 마리유 라베크 자매. '라베크 웨이'는 그들의 뿌리를 추적하며 써내려가는 영상의 위인전이다. 영상은 총 7개의 챕터로 되어 모차르트, 라벨, 메이테 마르틴, 베르디, 오스발도 골리호브, 거쉰 등의 명곡을 들려준다. 보너스 트랙에는 래틀 · 베를린 필과 플랑과 생상의 협주곡을 선사한다. "마리유와 피아노 앞에 앉아 첫 몇 음을 연주할 때면 내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무언가를 느껴요"라는 카티아의 말처럼 두 자매가 빚어내는 '물보다 진한 피'의 음악과 일상이 담겨 있는, 인상적인 다큐멘터리이다.

[보조자료]

– 뉴욕타임즈로부터 '오늘, 관객 앞에 마주한 가장 훌륭한 피아노 듀오'라는 칭찬을 받은 피아니스트 카티아와 마리유 라베크 자매. 이들의 연주와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물이다. 3~5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파리음악원에서 수학한 카티아와 마리유 라베크 자매는 흠잡을 데 없이 완성도가 높은 연주로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음악가 정신을 소유한 듀오'라는 호평도 듣고 있다. 그들은 바흐에서 20세기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듀오이다.

– 영국 BBC의 타마신 루이스가 이들의 삶과 음악 인생을 소재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1992년 10월 영국에서 방영했고, '엠마 바르닥의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출시되기도 했다.

– 클래식 음악, 아방가르드, 플라멩고 등 카티아와 마리유 라베크 자매에게 어떤 영역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베크 웨이'는 그들의 뿌리를 추적하며 써내려가는 영상의 위인전이다. 영상은 총 7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 (1)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0번 (2)라벨 '볼레로' (3)메이테 마르틴 '비달리타' (4)베르디 '레퀴엠' (5)B–for Bang '나의 기타에서 흘리는 눈물' (6)오스발도 골리호브 '나자렛' (7)거쉰 '랩소디 인 블루'. 각 챕터마다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과 무대에 선 자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자막은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 보너스 트랙에는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프란시스 플랑의 두 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생상의 두 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동물의 사육제'를 연주한다.

– 라베크 자매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자니 카티아의 말이 떠오른다. "마리유와 피아노 앞에 앉아 첫 몇 음을 연주할 때면 내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무언가를 느껴요. 이러한 체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해요. 삶을 향한 놀라운 일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idealeaudience 2073078 [DVD]

바흐: B단조 미사

존 넬슨(지휘), 파리 실내 오케스트라, 노트르담 합창단, 루스 지이작(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메조 소프라노), 다니엘 타일러(알토), 폴 앤뉴(테너), 디트리히 헨첼(바리톤)

존 넬슨의 수작 'B단조 미사'를 다시 만나다

2006년 3월, 파리 노트르담 성당 실황물로 버진 클래식스 레이블에서 나왔던 영상물이 재발매되었다. 같은 레이블(idealeaudience)에서 바흐 '마태수난곡', 하이든 '천지창조', 베토벤 '장엄미사' 등 종교음악의 주요 작품들을 내놓았던 그의 지휘와 해석은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B단조 미사' 속의 신앙심과 바로크 양식의 특징의 결합을 매만지고 다듬어 나간다. 넬슨이 유지하는 성악과 관현악의 뛰어난 균형감에, 디트리히 헨첼이 더해주는 중후한 무게가 잘 어울린다. 보너스 트랙(43분 분량)에는 프랑스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 앙드레 아르망 뱅트루아, 존 넬슨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음악회를 감상해본 경험이 있는 애호가에게 바흐와 어울리는 내부의 광경을 선사할 수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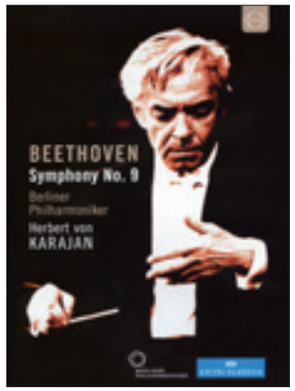
[보조자료]

– 2006년 3월, 파리 노트르담 성당 실황물로 버진 클래식스 레이블에서 나왔던 영상물이 재발매되었다. 루스 지이작(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메조 소프라노), 다니엘 타일러(알토), 폴 앤뉴(테너) 그리고 디트리히 헨첼(바리톤)이 함께 한다.

– 존 넬슨은 바로크 음악에서 선명하고 개성어린 해석을 하는 지휘자로 정평이 나있다. 여러 종교음악 걸작품 중 존 넬슨의 중심 레퍼토리가 되고 있는 것은 'B단조 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B단조 미사' 속의 신앙심과 바로크 양식의 특징의 결합을 매만지고 다듬어 나간다. '키리에'에서 강렬하고 세련된 대위법을, '글로리아'와 '상투스'의 시작부에서는 폭발하는 우주적 기쁨을, '아뉴스 데이'에서는 친밀감과 따사로운 애정을 느끼게 한다.

– 넬슨이 유지하는 성악과 관현악의 뛰어난 균형감, 디트리히 헨첼이 더해주는 중후한 무게가 잘 어울린다. 선이 굵은 해석이다. 합주의 울림이 편안하고 아늑하며 편성이 꽤 크게 느껴지는 것도 이 영상물의 묘미다. 두터운 합주의 질감에 따라 급격한 강약대비를 피하는 대신 한 악구 안에서는 비교적 크게 움직여 다닌다.

– 자막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 간단한 곡목해설을 담고 있는 해설지는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로 되어 있다. 보너스 트랙(43분 분량)에는 프랑스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 앙드레 아르망 뱅트루아, 존 넬슨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음악회를 감상해본 경험이 있는 애호가에게 바흐와 어울리는 내부의 광경을 선사할 수작이다.



EuroArts 2072408 **[DVD]**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휘), 안나 토모와-신토우(소프라노), 앤느 발트샤(콘트랄토), 르네 콜로(테너), 호세 반 담(베이스), 베를린 도이치오퍼 합창단

1977년 송년음악회에 오른 카라얀의 베토벤 〈합창〉

베토벤(1770~1827) 서거 150주기인 1977년을 마감하는 송년 음악회 실황 영상물이다. 카라얀과 베를린 필하모닉 궁합의 황금기 시절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영상물로 스튜디오에서의 통제력보다 실황에서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다. 영상물의 완벽함을 위해 자신이 직접 감독을 맡았던 카라얀이었지만, 이 영상은 험프리 버튼 감독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4악장 환희의 주제는 카라얀의 그 어떤 연주 중에 가장 빠른 속도감을 자아낸다. 흠잡을 데 없는 압도적인 수연으로, 육체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한 악구 안에서 큰 움직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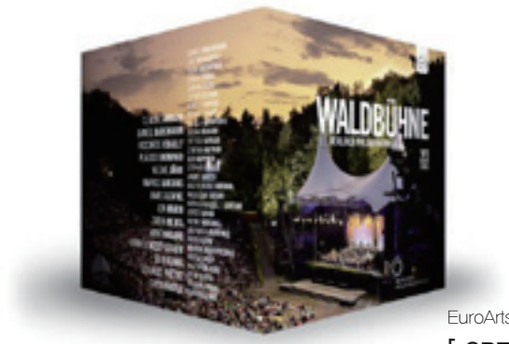
[보조자료]

– 베토벤(1770~1827) 서거 150주기인 1977년을 마감하는 송년 음악회(실베스터 콘서트) 실황 영상물이다. 카라얀과 베를린 필하모닉 궁합의 황금기 시절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영상물로 스튜디오에서의 통제력보다 실황에서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다.

– 카라얀은 영상물의 완벽함을 위해 외부 감독의 영입보다 자신이 직접 감독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 영상물을 험프리 버튼 감독이 만들었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험프리 버튼은 번스타인과 빈 필하모닉의 영상물을 많이 제작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송년 음악회의 영상물로 인한 인연으로 인하여 10년 후 카라얀이 지휘한 1987년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 영상물 제작도 참여하는데, 이 영상물 역시 현재까지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다.

– 영상물을 보고 있자니 카라얀의 진정한 가치는 통제된 스튜디오 녹음보다는 살아있는 실황 연주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한다. 데뷔 시절부터 찬사를 받은 것도 대부분 실황 연주를 통해서다. 영상 속 베를린 필하모닉의 정교함과 치밀함, 그리고 무게감은 마치 전차군단을 연상케 한다.

– 〈합창〉 교향곡의 하이라이트인 4악장 환희의 주제는 카라얀의 그 어떤 연주 중에 가장 빠른 속도감을 자아낸다. 흠잡을 데 없는 압도적인 수연으로, 육체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한 악구 안에서 큰 움직임을 보여준다.



EuroArts 2053728 **[20DVDs]**

[SPECIAL PRICE]

최고의 교향악단(베를린 필)과 함께 떠나는 여름 음악회

〈발트뷔네 콘서트〉

베를리너 필하모니커가 매년 발트뷔네에서 개최하는 여름 야외 음악회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0번의 콘서트를
20장의 디비디 박스, 특별한 가격으로!!!

[Violin] Lisa Batiashvili, Janine Jansen, Sarah Chang, Vadim Repin

[Piano] Yefim Bronfman, Stephen Hough, Katia & Marielle Labèque, Mari & Momo Kodama, Daniel Barenboim, Wayne Marshall, Marietta Simpson, Daniel Washington, Mikhail Rudy, Leon Fleisher

[Clarinet] Wenzel Fuchs

[Trio] Marcus Roberts Trio

[Guitar] John Williams

[Cynthia Haymon] Williard White

[Cynthia Clarey] Damon Evans

[Soprano] Renée Fleming, Marita Solberg, Ana María Martínez, Angela Gheorghiu

[Mezzo-soprano] Ingebjorg Kosmo, Susan Graham

[Tenor] Ben Heppner, Sergej Larin

[Bariton] Bryn Terfel

[Wadaiko] Eitetsu Hayashi

[Chorus] Rundfunkchor Berlin, Gerd Müller-Lorenz, chorus master

[Philharmoniker & Conductors] Berliner Philharmoniker, Yannick Nézet-Séguin, Sir Simon Rattle, Riccardo Chailly, Ion Marin, Neeme Järvi, Seiji Ozawa, Mariss Jansons, Plácido Domingo, Kent Nagano, James Levine, Daniel Barenboim, Zubin Mehta, Claudio Abbado

EuroArts 2061578 [DVD]
EuroArts 2061574 [Blu-ray]

필리페 자루스키가 부르는 텔레만과 바흐

필리페 자루스키(카운터테너), 프라이부르그 바로크 오케스트라

새보다 높게 깃털보다 가볍게, 그러나 폐부를 찌르는 영혼의 울림!

21세기 카운터테너계의 진정한 영웅으로 불리워지는 프랑스 출신의 필리페 자루스키가 2016년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에서 프라이부르그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텔레만과 바흐를 연주한 콘서트 실황을 담고 있는 영상물.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독일 작곡가들인 텔레만과 바흐의 칸타타를 담고 있는 이 실황은 자루스키에게 있어서는 첫 독일 바로크 성악 앨범으로서, 그는 비할 바 없는 미성과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호소력을 통해 상상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독일 칸타타들을 재창조해낸다. 프라이부르그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단아하면서도 싱그러운 음향과 격조 높은 표현력, 여러 시대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정겨운 앙상블 또한 훌륭하여 오디오적인 쾌감을 극대화시킨다. 음악과 영상, 연주와 레퍼토리에 있어서 레퍼런스 디스크로 사용할 만큼 완성도가 높은 영상물로서 일청을 권한다.

[수록곡]

Philippe Jaroussky sings Telemann and Bach
1. Opening 2:48

Georg Philipp Telemann
2. Overture to St. Matthew Passion 1:58

Georg Philipp Telemann: Cantata "Der am Ölberg zagende Jesus"
3. "Die stille Nacht umschloss den Kreis der Erden" 3:24
4. "Ich bin betrübt bis in den Tod" 3:26
5. "Er rung die heil'gen Hände" 0:41
6. "Mein Vater! Wenn's dir wohlgefällt" 3:26
7. "Allein, die Angst nahm jeden Nu" 0:33
8. "Kommet her, ihr Menschenkinder" 4:44

Georg Philipp Telemann
9. Overture to Brockes Passion 9:14

Georg Philipp Telemann: Cantata "Jesus liegt in den letzten Zügen"
10. "Jesus liegt in den letzten Zügen" 5:31
11. "Erbarmenswürd´ger Blick" 1:19
12. "Mein liebster Heiland" 4:47
13. "Jedoch, da dir`s gefällt" 0:44
14. "Darauf freuet sich mein Geist" 3:09

Johann Sebastian Bach
15. Cantata "Ich hatte viel Bekümmernis" : Sinfonia 2:47

Johann Sebastian Bach
16. Cantata "Der Herr denket an uns" : Sinfonia 2:34

Johann Sebastian Bach: Cantata "Ich habe genug"
17. "Ich habe genug" 8:14
18. "Schlummert ein, ihr matten Augen" 10:52
19. "Mein Gott! Wann komm das schöne – Nun!" 0:48
20. "Ich freue mich auf meinen Tod" 5:21

Georg Philipp Telemann
21. Brockes Passion : Was Wunder, dass der Sonnen Pracht 3:35

EuroArts 2053738 [12DVDs]

[SPECIAL PRICE]
바흐와 C.P.E. 바흐의 합창 · 피아노곡 모음집

가드너, 마사키 스즈키, 볼름슈테트, 톤 쿠프만, 지기스발트 쿠이켄, 아바도, 라데만, 하르무트 헨첸 등(지휘), 안드라시 시프, 가브릴로프, 안젤라 휴이트 등(피아노)

바흐를 꿰뚫어보는 '정통'들만 모았다!

'그레이트 바흐 베이식스'는 유로아츠가 남긴 바흐와 그의 아들 카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합창곡과 피아노곡을 묵직하게 묶은, 한마디로 바흐 음악에 관한 보고(寶庫)와 같은 전집물이다. 존 엘리엇 가드너의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DVD1)를 시작으로, 가브릴로프 · 안젤라 휴이트 등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 · 2권(DVD2), 마사키 스즈키의 '요한 수난곡'(DVD5), 볼름슈테트의 'B단조 미사'(DVD8), 안드라시 시프의 프랑스 모음곡(DVD11)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톤 쿠프만 · 지기스발트 쿠이켄 · 아바도 · 라데만 · 하르무트 헨첸 등이 지휘봉을 잡는다. 수록된 곡목만 보아도 소장용으로 손색이 전혀 없다. 연주자들 모두 바흐 음악에 '정통'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소장용을 넘어 바흐의 기념비적 연주를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자막이며, 곡목이 적힌 해설지(30쪽)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그레이트 바흐 베이식스'는 유로아츠가 남긴 바흐와 그의 아들 카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합창곡과 피아노곡을 묵직하게 묶은, 한마디로 바흐 음악에 관한 보고(寶庫)와 같은 영상물 전집이다. 12장으로 구성된 이 전집물은 국내에서 실연으로 접하기 힘든 수난곡, 칸타타, 모테트, 오라토리오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간마다 바흐의 피아노 레퍼토리도 수록하고 있다. 각 장을 지휘자,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레퍼토리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VD 1 & 2]
존 엘리엇 가드너와 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츠 · 몬테베르디 합창단의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DVD 3 & 4]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안드레이 가브릴로프 · 조안나 맥그레고르)와 2권(니콜라이 데미덴코 · 안젤라 휴이트)

[DVD 5]
마사키 스즈키와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바흐 '요한 수난곡'

[DVD 6]
톤 쿠프만과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 합창단의 요한 쿠나우(1660~1722)의 '마그니피카트(마리아의 노래)', 바흐 칸타타 '내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도다' BWV10와 바흐 '마그니피카트' BWV243a

[DVD 7]
지기스발트 쿠이켄과 고음악 단체 라 프티 방드의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 '부활과 승천' Wq240과 바흐의 승천절 오라토리오 '그의 왕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BWV11

[DVD 8]
헤르베르트 볼름슈테트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의 바흐 'B단조 미사' BWV232

[DVD 9]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 · 2번 · 3번 · 4번 · 5번 · 6번

[DVD 10]
한스 크리스토프 라데만과 아카데미 알테 무지크 베를린과 RIAS실내합창단의 바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BWV227, '예수는 나의 기쁨' BWV227을 포함한 9곡

[DVD 11]
안드라시 시프의 바흐 프랑스 모음곡 1~6번, 프랑스 스타일풍의 서곡 BWV831, 이탈리안 협주곡 BWV971

[DVD 12]
하르무트 헨첸과 C.P.E. 바흐 실내오케스트라의 카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수난 칸타타 '구세주의 마지막 고통' Wq233

레퍼토리만 보아도 소장용으로 손색이 전혀 없다. 게다가 연주자들 모두 바흐 음악에 '정통'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소장용을 넘어 바흐의 기념비적 연주를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자막이며, 30쪽 분량의 해설지는 각 곡에 대한 리스트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흐 음악에 정통한 마니아들과 전공자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Naxos

www.naxos.com

Naxos 2.110387 [DVD]
Naxos NBD0061 [Blu-ray]

2016 클로스터노이브르크 수도원 부활절 콘서트 헨델의 〈메시아〉 실황

루벤 두브로프스키(지휘), 바흐 콘소트 빈, 한나 헤르푸르트너(소프라노), 가이아 페트로네(알토), 마이클 샤데(테너), 크리스티안 이믈러(베이스), 잘츠부르크 바흐 합창단.

감성적 영상 연출, 감동의 〈메시아〉 연주

2016년 3월 19일, 오스트리아 클로스터노이브르크 수도원의 부활절 콘서트로 헨델의 '메시아' 실황이다. 그래몰라 레이블에서 음반(Gramola 99135)으로 출시된바 있는데, 음반에서의 감동과 여운을 느낀 이들이 구입한다면 그야말로 안성맞춤. 바흐 콘소트 빈을 창설하고 바로크 음악에 열정을 쏟고 있는 루벤 두브로프스키의 지휘와 자세는 신중하고 숭고한 울림을 자아낸다. 솔리스트와 합창단은 각 파트들의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수도원의 울림과 풍성한 잔향의 공간감이 인상적이다. 1080i의 초고화질의 영상은 블루레이 마니아들이 탐낼만하고, PCM스테레오/ DTS-HD 5.1 오디오 옵션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보조자료]

– 2016년 3월 19일, 오스트리아 남부에 위치한 클로스터노이브르크 수도원에서 선보인 부활절 콘서트 중 헨델의 〈메시아〉 실황이다. 이 공연은 그래몰라 레이블에서 음반(Gramola 99135)으로도 출시된 바 있다. 이 음반을 접하고 감동 받은 이들이, 혹은 그 현장감이 궁금한 이들이 더불어 구입한다면 안성맞춤인 영상물이다.

– 1742년, 헨델이 작곡한 〈메시아〉는 그가 야심차게 작곡한 오라토리오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영상물은 각 곡마다 1~6분 단위로 1파트(1~15트랙), 2파트(16~30), 3파트(31~34)로 구성되어 있다.

– 교회력(church calendar)의 대규모 축일을 아우르는 웅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곡을 헨델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작곡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서두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텍스트와 음악의 이음새가 꼼꼼하고 매끄러운 원작의 성격을 고스란히 살리는 루벤 두브로프스키의 지휘와 그 자세는 한마디로 신중하며, 숭고한 울림을 자아낸다. 폴란드 혈통을 가진 두브로프스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태생으로 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바흐 콘소트 빈을 창설하고 바로크 음악에 온 열정을 쏟고 있다.

– 한나 헤르푸르트너(소프라노), 가이아 페트로네(알토), 마이클 샤데(테너), 크리스티안 이믈러(베이스), 이 성악가들은 극적인 표현을 적절히 표현한다. 두브로프스키의 땀이 묻어있는 바흐 콘소트 빈과 잘츠부르크 바흐 합창단은 각 파트들의 조화와 균형을 알맞게 잡아가며 웅장한 대서사를 그려내는 데에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 솔로이스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수도원 내의 울림은 명료하고도 풍성하다. 잔향을 가득 채우는 공간감이 이 앨범의 별미! 2014년 말부터 블루레이 영상물 제작과 시장에 뛰어든 낙소스 레이블의 디테일한 영상 연출법을 만끽할 수 있다.

– 총 분량 125분, 자막은 영어와 독일어. 1080i의 초고화질의 영상은 블루레이 마니아들이 탐낼만하고, PCM스테레오/ DTS-HD 5.1 오디오 옵션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29D [2DVDs]

OPUS ARTE

**스페셜 가격 한정발매

Gala performances
– at the royal opera house, covent garden

로얄 오페라와 로얄 발레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들을 담아낸 박스이다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코벤트 가든에서 펼쳐진 화려한 두 번의 갈라 콘서트가 하나의 박스로 묶여 발매되었다. 1993년 차이코프스키의 타계 100주년 갈라에서는 플라시도 도밍고,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 키리 데 카리와와 같은 세계적인 성악가와 더불어 로열 발레단의 국제적인 스타 댄서 다시 버셀, 비비아나 두란데가 스페이드의 여왕, 에브게니 오네긴, 호두까기 인형과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축하하였다.

1996년의 오페라 갈라콘서트에서는 신혼이었던 알라냐-게오르규 부부가 도밍고와 함께 하였다. 그 이전에 〈라보엠〉을 함께 공연하기도 했던 두 사람은 알라냐가 첫 아내와 사별하고 게오르규가 첫 남편과 갈라선 다음인 1996년 5월, 뉴욕에서 당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의 주례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려 큰 화제가 되었다. 본 영상물은 그해 12월 코벤트가든에서 열린 갈라다. 파바로티를 제치고 오페라계의 황제로 등극한 플라시도 도밍고가 호스트 역할을 하고 아직 신혼이던 알라냐-게오르규 부부를 위시한 코벤트가든의 젊은 대가들을 초청하는 형태로 음악회를 연 것이다. '금과 은의 갈라'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도밍고는 마지막 무대에 직접 지휘대에 서서 레하르의 '금과 은' 왈츠를 지휘한다. 루마니아의 레온티나 바두바(소프라노), 미국의 수잔 그레이엄(메조소프라노), 드웨인 크로프트(바리톤), 영국의 로버트 로이드(베이스), 칠레의 베로니카 빌라로엘(소프라노) 등 현재도 맹활약하고 있는 최고 명가수들의 12년 전 모습을 만끽할 수는 초호화판 갈라다.

**
OAR3109 Great Opera Arias,
OAR3110 Opera & Ballet favourites 2장이 들어있습니다.

OpusArte OABD7211BD [4BD Set]

**스페셜 가격 한정발매

글라인드본 프로덕션의 매력적이었던 헨델의 오페라

1) 줄리오 체사레
2005년 8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실황.케사르를 19세기말 빅토리아 왕조시대의 정복자로 재해석한 데이비드 백비카의 창조적인 연출은 별다른 지루함 없이 이 기나긴 작품을 단번에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일급 성악진들의 열창과 열연이 눈부시며, 특히 클레오파트라를 맡은 데 니스의 매력적인 용모와 관능적인 연기가 특기할 만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바로크 오페라 스페셜리스트인 윌리엄 크리스티의 지휘는 이 영상물의 음악적인 충실함을 보장한다.

2) 리날도
2011년 8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실황을 옮긴 것으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오페라 연출가인 로버트 카슨과, 시대악기 연주계의 총아 오타비오 단토네가 힘을 모은 화제의 프로덕션을 OpusArte가 자랑하는 최고의 화질과 음향으로 담았다. 중세의 팔레스트리나를 무대로 하는 이 오페라가 카슨의 기발한 상상력을 통하여 현대의 한 학교를 배경으로 옮겨졌다. 카슨의 감각적인 연출과 더불어 소니아 프리나, 루카 피사로니를 비롯한 실력파 가수들의 열창이 이 영상물의 가치를 드높인다.

3) 사울 [한글자막]
2015년 글라인드본 오페라하우스 프로덕션으로, 연출가 배리 코스키는 헨델의 오라토리오에서 극적인 요소를 잘 발라내어 그로테스크한 무대와 분장, 풍자성을 돋보이게 한 또 하나의 역작으로 재탄생시켰다. 타이틀 롤의 크리스토프 퍼브스와 다윗 역의 카운터테너 레스팅 데이비스를 비롯하여 조연의 활약도 매력 만점이다. Full HD 1080p의 초고화질은 출연진의 그로테스크한 분장과 무대를 생생히 잡아내며, 오페라처럼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
줄리오 체사레, 리날도, 사울[한글자막]"을 담은 박스

OpusArte OABD7217 [4BD Set]

로얄 발레의 네 가지 보석을 한번에
[스페셜 가격 – 4 Blu-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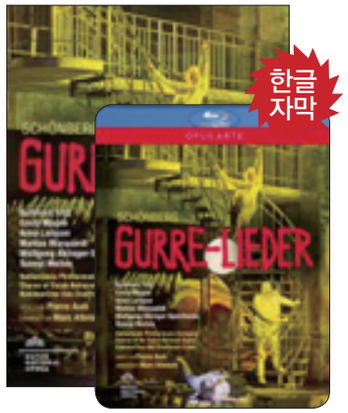
이 특별한 컬렉션은 영국 로얄발레단이 공연했던 작품들 중 가장 사랑받았던 네 가지 작품(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호두까기 인형, 피터와 늑대, 베아트릭스 포터 이야기)를 한 박스에 담았다.

1) 탈보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OABD7090D –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2)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OABD7072D – The Nutcracker)

3) 프로코피에프: 발레 '피터와 늑대'
(OABD7091D – Peter and the Wolf)

4) 베아트릭스 포터 이야기
(OABD7058D – Tales of Beatrix Potter)



OpusArte OA1227D [DVD]
OpusArte OABD7215 [Blu-ray]

쇤베르크: 구레의 노래

피에르 아우디(연출), 마르크 알브레히트(지휘),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국립오페라 합창단, 부르크하르트 프리츠(발데마르), 에밀리 매기(토브)

드디어 오페라로 만나는 쇤베르크 〈구레의 노래〉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를 완전한 오페라로 올린 2016년 네덜란드 오페라극장 실황 영상물이다. 바그너의 오페라, 말러의 〈천인 교향곡〉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의 연장으로 쇤베르크 음악에 담긴 조성적 낭만을 즐기고 싶은 마니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작품 속 배경은 12세기 덴마크 해안에 위치한 구레 성. 발데마르 왕과 아름다운 토브 사이의 불운한 사랑과 그녀의 살해와 신성 모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연가곡 · 칸타타 · 오페라의 형식이 혼용된 작품으로 마르트 알브레히트의 지휘는 소용돌이를 몰아치는 듯하고, 네덜란드 오페라 오케스트라는 풍부하며 여유 있고, 각 상황에 맞는 자극적 연주를자랑한다. 연출은 피에르 아우디. 방대한 규모로 인해 연주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이 대작을 우수한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자료]

– 바그너의 오페라, 말러의 〈천인 교향곡〉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의 연장으로 쇤베르크 음악에 담긴 조성적 낭만을 즐기고 싶은 마니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영상물이다. 완전한 형태의 오페라로 세계 초연된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를 담은 2016년 네덜란드 오페라극장 실황 영상물로, 한국어 자막을 갖췄고,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네덜란드어 · 일본어로 되어 있다.

– 〈구레의 노래〉는 덴마크의 시인 · 소설가 옌스 페터 야콥센의 동명작품을 로베르트 프란츠 아놀드가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텍스트로 삼아 작곡한 작품이다. 배경은 12세기 덴마크 해안에 위치한 구레 성으로, 중세 덴마크의 왕 발데마르와 아름다운 토브 사이의 불운한 사랑과 그녀의 살해 그리고 그의 신성 모독에 관한 내용이다. 쇤베르크가 26세였던 1911년에 완성된 〈구레의 노래〉의 일부는 연가곡 형태이고 일부는 칸타타, 일부는 후기 바그너적 사랑의 죽음과 같은 오페라적 성격을 띤다.

– "구레의 노래는 사랑, 죽음, 배신, 대자연의 힘, 초월을 다룬 작품입니다. 쇤베르크는 바그너 · 슈트라우스 · 말러의 모든 음악을 동시에 취해 삼켜 소화시킬 수 있었던 진정한 천재였습니다. 섹시하고 맵시있고 선정적인 면이 늘 함께 하는 것도 그의 음악의 특징이죠."(사이먼 래틀)

– 부르크하르트 프리츠가 발데마르 역으로 나오고, 토브 역의 에밀리 매기는 대담하고 놀라운 발성으로 곡에 세련미를 더한다. 마르트 알브레히트의 지휘는 소용돌이를 몰아치듯 표현한다.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풍부하며 여유 있고, 각 상황에 맞는 자극적 요소 또한 갖추고 있다.

– 이 프로덕션을 연출한 피에르 아우디는 1988년부터는 네덜란드 오페라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 연출가로 인기몰이 중이다. 바그너, 몬테베르디 4부작(〈오르페오〉, 〈율리시즈의 귀환〉, 〈포페아의 대관〉, 〈탄크레디와 클로린다의 전투〉)를 연출했다. 방대한 규모로 인해 연주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이 대작을 우수한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출연 성악가와 연출가의 연습현장과 인터뷰를 담은 필름(22분 분량)이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가 있다.

OpusArte OA1191D [DVD]
OpusArte OABD7213 [Blu-ray]

2016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오페라 실황 공연

바그너: 연애금지

이보르 볼턴(지휘), 카스퍼 홀텐(연출), 테아트로 레알 오케스트라 · 합창단, 크리스토퍼 맬트먼(프리드리히), 이자벨라(마뉘엘라 울) 페터 로달(루치오), 클라우디오(일케르 아르카위렉)

바그너의 초기작을 대표하는, 하지만 전혀 바그너스럽지 않은 오페라!

2016년 3월,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오페라의 실황물로 바그너의 초기 오페라 '연애금지'를 세계 최초로 영상화한 것이다. 바그너의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탈리아적 색채를 지녔다. 1080i의 초고화질에 LPCM 24비트 스테레오/5.1 DTS-HD 마스터 오디오로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담고 있다. 길이는 약 160분,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1836년 초연작으로 극중 프리드리히 백작은 법령 공포 후, 사육제 기간에 강제로 연애를 시키고, 젊은 수녀와 몸을 섞고, 하지만 끝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스마트폰과 네온 사인이 등장하는 무대도 인상적. 젊은 수녀의 이자벨라 역은 새로운 바그네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마뉘엘라 울이 맡아 존재감을 드러낸다. 작품 속 몇 선율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나 '탄호이저'에도 사용되기도 했다.

[보조자료]

– 2016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테아트로 레알 오페라 실황물로, 데아트로 레알에 영국 로열 오페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테아트로 콜론이 협력 제작한 바그너의 오페라 '연애금지'다. 이 영상물은 '연애금지'를 최초로 영상화한 것. 바그너의 유도동기 기법(라이트 모티프)과 정반대의 영역에 위치한 이탈리아 오페라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많은 유산으로 빚은 초기작이다. 1080i의 초고화질의 영상은 블루레이 마니아들이 탐낼만하고, LPCM 24비트 스테레오/5.1 DTS-HD 마스터 오디오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길이는 약 160분. 한국어 자막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로 되어 있다.

– 바그너(1813~1883)는 1833년부터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경력을 쌓아나갔다. 초기 오페라들은 이 시기에 작곡되었는데 1832년 첫 오페라 '혼례'를 프라하를 완성 전에 포기했고, 1834년 두 번째 오페라이자 첫 장편 오페라인 '요정'을, 1836년 세 번째로 이탈리아적 스타일이 강한 '연애금지'를 뷔르츠부르크에서 완성했다. 1836년 마그데부르크 시립극장에서 베토벤 협회에 의해 '팔레르모의 수녀'라는 제목으로 초연되었다. 글룩, 벨리니, 오베르의 영향을 받은 이 오페라는 바그너가 부채를 갚기 위해 1834년부터 1836년에 걸쳐 작곡되었다. 이전의 훌륭한 오페라들을 중 빛나는 단편들을 성급하게 수집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당시의 바그너가 '청년 독일파' 운동에 의해 확산되었던 사조에 영향을 받아 작곡했다. 도덕적이고 위선적인 법에 대한 반동으로서 자유로운 관능을 찬미하여 몇 차례 검열을 받기도 했다. 바그너는 초연 후 베토벤 협회의 파산으로 재상연이 중단됨에 따라 이 작품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중 몇 선율은 그의 중기시대를 열었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나 '탄호이저'에도 사용되기도 했다.

– 2막으로 구성되었다. 1막. 팔레르모에서 총독 프리드리히 백작이 필라트 공작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법령을 공포한다. 때마침 시작되는 사육제 기간에는 연애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프리드리히는 이것을 억압하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라이벌인 클라우디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젊은 수녀인 클라우디오의 누이동생 이자벨라는 클라우디오에 대한 특별사면의 대가로 프리드리히에게 몸을 허락한다. 2막. 프리드리히의 정부였던 마리아나는 이제 프리드리히에게 버림받는다. 하지만 그녀는 클라우디오의 친구들과 공모하여 이자벨라가 프리드리히와 만나는 날 마리아나가 이자벨라를 대신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사실을 안 프리드리히는 배신감으로 클라우디오의 사형집행을 명하는 순간 공작이 등장해 그것을 중지시키고 프리드리히는 마리아나와 결혼하라는 명을 받는다.

– 카스퍼 홀텐이 연출한 무대에는 초대형 스마트폰과 네온사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모던과 고전, 우스꽝스러운 의상, 영상과 연극적 요소가 한데 뒤섞여 유쾌한 상상력을 돋운다. 프리드리히 역은 크리스토프 맬트먼은 능청스러운 독재자를 그려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바그네리안으로 조명 받고 있는 이자벨라 역의 마뉘엘라 울이다. 이보르 볼턴이 지휘하는 테아트로 레알 오케스트라는 경쾌하다.

OpusArte OA1231D [DVD]
OpusArte OABD7182 [Blu-ray]

로열 발레: 프랑켄슈타인

리암 스칼렛(안무), 로웰 리버만(작곡), 코엔 카셀(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페데리코 보넬리(프랑켄슈타인), 로라 모리라(엘리자베스), 스티븐 맥레이(괴물)

괴기소설의 고전 '프랑켄슈타인'을 발레로 만나다

인간이 창조한 괴물의 이야기를 그린 과학소설의 고전 '프랑켄슈타인'을 바탕으로 로열 발레의 리암 스칼렛이 안무했고, 영국 로열발레의 페데리코 보넬리(프랑켄슈타인 역), 로라 모리라(엘리자베스 역), 스티븐 맥레이(괴물 역)가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괴물은 추악한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증오심으로 복수를 꾀한다는 내용으로, 이 작품도 이러한 줄거리를 따르며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존 맥커래인이 연출한 괴물의 그로테스크한 나체 분장 역시 관객에게 섬뜩한 공포를 자아낸다. 2016년 3월 코벤트 가든 공연 실황을 담은 월드 프리미엄의 고화질 영상물이며, 로웰 리버만의 음악은 보는 이의 귀를 풍성히 해준다.

[보조자료]

– 영국 로열 발레의 페데리코 보넬리(프랑켄슈타인 역), 로라 모리라(엘리자베스 역), 스티븐 맥레이(괴물 역)는 안무가 리암 스칼렛이 새로운 발레 경향을 녹여 넣은 '프랑켄슈타인'을 이끄는 견인차 같은 무용수들로 출연하여 춤과 연기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 잡는다. 이 영상물은 2016년 3월 코벤트 가든 공연 실황을 담은 월드 프리미엄의 고고화질 영상물이며, 미국의 저명 작곡가 로웰 리버만의 놀라운 음악이 담겨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는 이의 귀를 풍성히 해준다.

– 인간이 창조한 괴물의 이야기를 그린 과학소설의 고전 '프랑켄슈타인'은 영화는 물론 연극, 만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생산된 유명한 공포소설이다.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물리학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그는 시체로 만든 괴물에 생명을 불어넣지만, 자신이 만든 괴물의 형상에 경악해 도피해버린다.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나타난 괴물은 추악한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증오심으로 복수를 꾀한다는 내용이다. 스칼렛의 안무도 이 줄거리를 따르며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그의 연인 엘리자베스가 펼치는 사랑의 2인무는 낭만 발레의 묘미를 보여주고, 페데리코 보넬리가 연기하는 괴물 역은 창작 발레의 새로운 경향과 움직임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의상디자이너 존 맥커래인이 연출한 괴물의 그로테스크한 나체 분장 역시 관객에게 섬뜩한 공포를 자아낸다.

OpusArte OA1230D [DVD]
OpusArte OABD7216 [Blu-ray]

마리우스 프티파(피터 라이트 버전): 〈지젤〉 2016년 로열 발레 코벤트가든 실황

마리우스 프티파(안무), 피터 라이트(버전), 베리 워즈워스(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마리아넬라 누녜스(지젤), 바딤 문타기로(알브레히트)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 마리아넬라 누녜스가 그려낸 지젤

초고화질(1080i)로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 수석무용수 마리아넬라 누녜스의 지젤 역을, 바딤 문타기로의 알브레히트 역을 만날 수 있는 영상물(2016년 로열 코벤트가든 실황)이다. 마리우스 프티파 안무/피터 라이트 버전의 '지젤'은 서정적이며, 무용수들의 세심하고 군더더기 없는 정교한 연기를 요구하며, 마임의 비중도 높은 명작이다. 마리아넬라 누녜스의 빼놓을 수 없는 테크닉은 물론 발레리나의 목에서 어깨를 거쳐 팔로 이어지는 선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른바 '지젤라인(Giselle Line)'이 이 공연의 정점을 찍는다. 출연무용수와 피터 라이트의 인터뷰가 담긴 소중한 보너스 트랙(약 10분)도 담겨 있다.

[보조자료]

– 2016년 로열 코벤트가든에 오른 실황 동영상으로 '가디언'지로부터 "황홀한 기교"라는 평을 받은 작품이다.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이자 수석무용수 마리아넬라 누녜스가 지젤 역을, 바딤 문타기로가 알브레히트 역을 맡았다.

–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그의 조수였던 레프 이바노프의 '호두까기인형'의 개정판을 만들었던 피터 라이트판이다. 라이트 버전의 '지젤'은 원래 서정적 무대가 많은 '지젤' 중 세심하고 군더더기 없는 정교한 연기가 필요한 버전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원래 마임도 많은 작품이지만, 이 버전은 그보다 더 섬세한 마임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더 많은 재미를 더해준다.

– '지젤'은 타이틀롤인 지젤의 연기변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1막 중반까지 사랑에 빠진 명랑하고 순박한 시골 처녀의 모습, 1막 후반에선 남자의 배신을 알고 나서 미쳐가는 비련의 여인, 2막에서 영혼은 창백하지만 가슴 속에 사랑을 담은 슬픈 윌리의 모습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연기와 테크닉이 필요하다.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 마리아넬라 누녜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테크닉은 물론 발레리나의 목에서 어깨를 거쳐 팔로 이어지는 선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른바 '지젤라인(Giselle Line)'이 정점을 찍는다. 출연무용수와 피터 라이트의 인터뷰가 담긴 소중한 보너스 트랙(약 10분)도 담겨 있다. 초고화질(1080i)과 스테레오/DTS 서라운드의 오디오 옵션이 코벤트가든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생생함을 제공한다.

Accentus LP

www.aurora.ws

ACC40372
[180g 2LP] 독일제작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

주 샤오-메이[피아노]

순환하는 도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정중동의 이미지

주 샤오-메이는 파리음악원과 북경음악원에서 가르쳤으며, 퇴임 이후 녹음 작업과 젊은 연주자를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녀의 녹음 레퍼토리는 바흐로, 이것은 그녀의 평생의 꿈이기도 하다. 특히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모택동의 노동캠프부터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까지'라는 자서전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지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 샤오-메이는 이 곡을 노자의 말을 빌어 "도의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연주는 지나치지 않고 경건함에 이르며,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인간의 삶이 생동하는 정중동의 경지에 이른다.

BR Klassik LP

www.br-klassik.de

900315 **[180g 독일제작]**

[1959–1965년 미공개 방송 레코딩]

프리츠 분덜리히: 뮌헨 방송교향악단과의 기억들

프리츠 분덜리히, 뮌헨 방송교향악단, 아이이혼, 쾰러, 몰트카우등 외

프리츠 분덜리히 서거 50주년 추모앨범, 미공개 레코딩

시대를 초월한 미성, 프리츠 분덜리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고 있다. BR 클래식에서는 분덜리히 서거 5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뮌헨 방송교향악단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담긴 미공개 레코딩을 마련했다. 짧은 일생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1959년 1965년 사이의 녹음에서 분덜리히는 쿠르트 아이이혼, 한스 몰트카우 등의 지휘로 독일 레퍼토리를 노래한다. 청아하고 생명력 있는 목소리는 그 자체가 시나 다름없다. 세월에 비해 깨끗하면서도 운치 있는 음향 속에서 분덜리히의 매력은 그 시절 그대로 살아 숨 쉰다. **[LP 발매]**

느림, 고독, 방랑을 노래하는 시인이자 포크로커인

로테 케스트너 Lotte Kestner

Covers

CD Aulos Media AMC-2170

느림, 고독, 방랑을 노래하는 시인이자 포크로커인 로테 케스트너.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 시인 임의진의 초이스 음반.
사비나 아나투, 이노센스 미션, 나오미 앤 고르, 데이비드 버클리 등에 이은 시리즈. 닉 드레이크,
핑크 플로이드, 라디오헤드,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엘보, 슬로우 다이브를 비롯 존 레넌까지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총망라 재해석하고 있다.
단 한곡도 놓치지 마시길!!!

표지사진
낙소스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한정 박스

〈아울로스뉴스〉 2016년 5월호
통권 제 70호 발행 2017년 5월 1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